제1차 수출전략회의
(안건2)

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

2022. 11. 23.

관 계 부 처 합 동

목 차

Ⅰ. 수출입 동향 및 시장별 수출 여건 ····· 1

Ⅱ. 추진 방향 ····· 4

Ⅲ. 세부 추진 전략 ····· 5

1. 시장별 특화 전략 ····· 5

2.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····· 10

3. 全부처 ·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 강화 ····· 17

4. 에너지 수입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····· 20

【별첨】 부처별 '23년 수출활성화 방안 ····· 21

Ⅰ. 수출입 동향 및 시장별 수출 여건

1. 수출입 동향 및 전망

□ (수출) '22년 하반기 수출둔화에도 불구,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예상

○ '20.2분기를 저점(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수출급감)으로 '22.3분기까지 **2년간 한국 수출**은 **꾸준히 증가세 유지**

- 다만, **'22.6월**(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정책 확산) 이후 **수출증가세 둔화**

* 수출증감률(%) : ('21년) 25.7 → ('22.上) 15.6 → **(7월) 8.7 → (8월) 6.6 → (9월) 2.3 → (10월) △5.7**

○ 최대 수출품목인 **반도체**는 **상반기 수출증가**를 견인했으나, **수요 약세·재고누적**에 따른 **제품가격 하락**으로 8월 이후 **수출 감소**

* 반도체 수출증감률(%) : ('21.上) 21.9 → ('21.下) 35.4 → ('22.上) 20.8 → (3분기) △3.9 → (10월) △17.4

- 高유가에 따른 **석유제품 가격 상승**, **수급**이 개선된 **자동차 부품, 이차전지 등의 영향**으로 **수출 증가에 기여**

* '22.1~10월 수출증감률(%) : (석유제품) 75.6, (자동차) 13.6, (이차전지) 15.2, (차부품) 3.5

□ (수입) 에너지 인플레이션發 수입 확대 → 무역적자의 주된 원인

○ **생산·소비 확대**와 **원자재 가격 급등**으로 '21년 이후 **수입 증가**

- **원유·가스·석탄 가격 상승***에 따른 **에너지 수입 급증**이 **수입 확대**를 주도하며 10월 누계기준 **최대 수입액** 기록(6,127억불, +23.4%)

* '22.1~10월 가격증감률(전년비, %) : (원유) +46.5, (가스) +131.8, (석탄) +169.0

○ '08년 금융위기 이후 **매년 흑자**를 유지해왔으나 '22년에는 **수입**이 **급증**하며 **'22.4월 이후 적자 지속** (1~10월 누계 △355억불)

□ (전망) 약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, 외부 리스크 해소시 개선 가능성

○ **세계 경제성장 둔화**에 따른 **글로벌 수요 감소의 영향**으로 **'23년 수출 약보합세**가 예상되는 가운데,

* '23년 수출 전망(%) : (한은) ('23.上) +0.8 → ('23.下) △0.1 / (산업硏) ('23.上) △7.0 → ('23.下) +0.3

○ 러·우 전쟁, 원유감산 등 **공급측면의 리스크 요인이 해소**될 경우 **수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**도 존재

2. 3대 주력시장별 수출동향 및 여건

※ 우리나라 수출에서 3대 시장(중국, 아세안, 미국)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%

□ (중국) 제조업 고도화, 생산거점 이전 등으로 對中 수출 성장정체

○ 그간 우리 對中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간재 위주의('21년 수출비중 79.6%)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옴

○ 對中 기술경쟁 우위를 보유한 반도체는 對中 수출 성장세 유지했으나,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으로 對中 반도체 수출도 감소

* 對中 반도체 수출액(억불) : ('15년) 278 → ('17년) 393 → ('18년) 522 → ('21년) 502
* 對中 반도체 수출증감률(%) : ('22.上) 27.2 → (7월) 14.8 → (8월) △3.6 → (9월) 1.9 → (10월) △22.0

⇨ 반도체 기술 超격차 유지,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新성장동력 확보 필요

□ (아세안) '글로벌 생산거점'이자 우리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

○ 생산기지로서 아세안이 부상하며 우리 기업 對아세안 투자 확대

* 기간별 평균 對中/아세안 FDI(억불) : ('14~'17년) 中 32.2 / 亞 48.1 → ('18~'21년) 中 54.7 / 亞 89.3
* 韓 기업 사례 : (삼성) 中 배터리팩 공장 폐쇄('21.4Q) + 베트남 R&D 센터 신설('21.5월), (LG) 中 전장부품 법인 청산('20.4Q) + 中 R&D 센터 인니 이전 검토('22.7월)

○ '22.1~10월 對아세안 수출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인 18.5%로, '18년 이후 中 수출비중 감소분(△2.8%p)을 아세안(+2.0%p)·미국(+2.0%p)이 대체

* 주요국 수출비중('18→'22.1~10월, %) : (중국) 26.8 → 23.1 vs. (아세안) 16.6 → 18.5, (미국) 12.0 → 15.9

⇨ 다만 중간재*와 베트남('21년 아세안 中 52.1%)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바, 품목·시장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출구조 마련 필요

* 주요 품목별 수출비중('21년, %) : (반도체) 22.5, (디스플레이) 11.2, (석유제품) 9.6 ⇒ (중간재) 84.8%

□ (미국) '17년 이후 지속 성장세 →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계기로 재도약

○ 공급망 안정화, 현지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對美 FDI 증가와 함께 對美 수출도 '17년 이후 꾸준히 성장세 유지

* 對美해외투자(억불) : ('17년) 153 → ('18년) 112 → ('19년) 158 → ('20년) 152 → ('21년) 279
* 對美수출액(억불) : ('17년) 686 → ('18년) 727 → ('19년) 733 → ('20년) 741 → ('21년) 959

○ 美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·IRA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한편, 해외 업계에 對美 투자 확대 요구

⇨ 對美 투자 확대를 요구한 반도체·배터리 등 공급망 핵심품목과 연계하여 관련 소재·부품·장비의 수출 확대 계기로 활용

3. 3대 전략시장별 수출동향 및 여건

※ 고유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(중동), 적극적 경기 부양책 시행(중남미), 친환경 이슈 부각(EU) 등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함께 발생 →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필요

□ (중동) 정상경제외교 성과 등과 연계하여 중동 특수 적극 활용 필요

○ **對중동 수출**은 **지역 경제성장**을 좌우하는 **유가**에 **비례**하는 경향

- 코로나 확산시기('20년) 이후 **세계 수요**가 **회복**되며 **유가 상승** → **對중동 수출**도 **'21년 플러스**에 이어 **올해도 증가**할 전망

○ 사우디(네옴시티 프로젝트), UAE(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) 등 **주요 산유국에서 추진** 중인 **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출확대 기회**로 **활용**할 필요

- **빈살만 왕세자 방한**을 계기로 **본격 추진 중인 정상외교와 연계**하여 해외건설 수주 등 **중동지역 인프라 투자에 적극 참여**

* 對중동 플랜트 수주액(억불) : ('10~'14년) 1,347 → ('18년) 70.3 → ('21년) 76.7 → ('22.1~10월) 51.7

□ (중남미) 안정적 증가세 지속을 위한 협력망 확대 및 新성장동력 필요

○ 한·칠레 FTA 발효('04년) 후 **안정적인 중남미 경제성장**에 힘입어, **증가세를 이어오던 對중남미 수출**은 금융위기 이후 **둔화 흐름**

* 평균 수출증감률(%, '04~'10년 → '11~'20년) : (전체) 22→△4, (기계) 31→3, (철강) 44→1, (車) 38→△12

○ 코로나19 이후 **적극적인 경기부양책** 등의 영향으로 **수출 반등세**

- 다만,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**중남미 경기둔화** 등 고려 시 **경기민감 품목 중심**에서 탈피하여 **새로운 수출 성장동력 모색 필요**

□ (EU) 역내외 정세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·위기 요인 적극 대응

○ **對EU 수출**은 우리 9대 지역 중 중국·아세안·미국에 이은 **4위**

* '21년 주요지역별 수출액(억불) : (전체) 6,444, (중국) 1,629, (아세안) 1,088, (미국) 959, (EU) 636

- 자동차·선박 등 **수송기기 수출**이 **증가세**를 **견인**해왔으며, '20년 이후로는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**바이오 수출**도 크게 **증가**

○ 다만, 러·우 전쟁發 **에너지 수급불안** 등 영향으로 주요 기관은 **'23년 유로존 경제성장 둔화** 예상('22년 3.1% → '23년 0.5%, IMF)

- **친환경 제도**(CBAM 등)도 **추진 중으로 對EU 수출의 불확실성 증가**

Ⅱ. 추진 방향

비 전	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**국민경제 지속 성장**
목 표	국가적 수출역량 결집으로 **2026년 수출 5대 강국 달성**
기본방향	■ 주력/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전략 추진 ■ 全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저변 확대 ■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

추진 과제	세부 과제
❶ 시장별 특화 전략	① 아세안, 미국, 중국 등 3대 主力시장 수출 확대 ② 중동, 중남미, EU 등 3대 戰略시장 협력 확대
❷ 분야별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	① 주력·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②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③「수출지원 사각지대」해소 및 지원 확대 ④ 무역금융, 인증,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
❸ 수출지원 역량 강화	① 全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·강화 ② 全부처 유관기관 수출지원역량 강화
❹ 에너지수입 절감	① 에너지 효율투자 지원 강화 ② 에너지 수요 관리

Ⅲ. 세부 추진 전략

1 시장별 특화 전략

1. 3대 주력시장 수출 확대

1 아세안

(진단) 글로벌 생산거점, 핵심광물·원자재 보유 + 거대 소비시장
⇨ 베트남 플러스 전략, 전방위 수출 확대, 시장리스크 최소화

1 시장진출 확대 및 핵심광물 협력 강화

❶ **(베트남 플러스 전략) 베트남에 편중*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니, 태국 등으로 확장**하여 **아세안 역내 다각화** 추진**

* [**투자비중**(%, '12~'21)] (베) 37.8, (싱) 28.8, (인니) 13.9, [**무역비중**] (베) 45.7, (싱) 14.1, (인니) 10.9
** 해외생산시설지원 금융 및 M&A 지원, 진출타깃 지역 맞춤형 상담·세미나 개최 등

❷ **(핵심광물 확보 협력) 핵심광물 자원부국*과의 G2G 공급망·기술 협력 강화** 및 **기업의 광물·소재 공급망 구축** 활동 지원**

* (인니)니켈·주석·보크사이트, (필리핀)니켈·코발트, (미얀마·태국·베트남)희토류 등
** (인니)니켈·배터리 合주기투자, (말련)배터리 소재(동박) 투자, (필)희토류·니켈 공동탐사·개발

2 소비재·서비스·인프라 등 전방위 수출 확대

❶ **(소비재) 한류·할랄·전자상거래 활성화**를 통한 수출 확대

* (한류) 정부부처 합동 「한류박람회」 개최('22.10월), 해외홍보관 개관(인니, '22.12),
(할랄) 할랄수출지원기관협의회 운영('23.上), (전자상거래) 글로벌 플랫폼 입점·판촉 지원

❷ **(서비스)** 수요에 맞춘 **콘텐츠·에듀테크·헬스케어** 등 유망산업 진출

* (콘텐츠) 해외진출거점 확충, 지재권 보호강화, (에듀테크) "공급자(한중일)-수요자(아세안)간 협의체" 운영 지원, (헬스케어)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거점형성 지원

❸ **(인프라) 인니 수도이전 프로젝트**(358억불)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, ODA 등 협력사업과 연계한 **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** 본격 추진

3 지재권 보호, 규제 완화, 현지지원 확대 등 시장리스크 최소화

❶ **(지재권·규제)** 불법유통 차단·피해구제 지원 등 **지재권 보호 강화, 제조·품질관리** 관련 **인증의 상호인정을 통한 규제 완화**

❷ **(현지지원)** 코리아데스크*·비즈니스협력센터** 등 **현지 지원인프라 강화**

* 현지 정부기관내 데스크 운영(베), ** 대사관, 공공기관, 협단체 등 원루프 지원플랫폼(베, 인니)

2 미국

(진단) 최대소비시장, 우수한 기술·인력 구비 + '자국 우선주의' 병존
⇨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및 공급망 투자 확대, 통상현안 대응

1 친환경 · 공급망 분야 프로젝트 및 투자 집중 지원

❶ (인프라진출) 美 인프라·친환경 대규모 투자계획*을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적극 활용하여, 프로젝트 수주 및 진출 총력 지원

* 「인프라 투자법('21.11월, 1.2조불)」, 「인플레이션 감축법('22.8월, 3,690억불)」

- 사업기회 선제 발굴 및 유망 프로젝트 정보 신속제공, 현지화 전략 지원, 美 조달특혜제도(Buy America) 대응 등 법률상담

❷ (상호투자협력)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첨단기술 확보를 목표로, 해외투자 및 미국기업투자 유치 등 상호간 투자협력 강화

※ **'22.9월 대통령 방미 성과**(반도체·전기차 등 7개사, 11.5억불 유치) 관련 현금지원, 신속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 협의 및 애로해소 지원으로 **성공적 투자 이행 추진중**

2 IRA 등 통상현안 밀착 대응 및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

❶ (통상현안대응) IRA 전기차,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아웃리치 확대, 업계와 소통하며 긴밀히 대응

❷ (대응체계) 美 통상환경 변화를 선제적 포착 및 적기 대응하기 위해 현지 '경제통상협력데스크(무역관內)'를 중심으로 대응능력 강화*

* 민관합동 대응체계 구축, 현지 통상·정보전문가 채용, 현지 싱크탱크와 네트워킹

3 양자·다자 협의체를 통한 공급망 재편 논의 적극 참여

❶ (공급망·산업대화) '22.5월 한-미 장관급 공급망 대화 채널로 신설한 '공급망·산업대화(SCCD)' 플랫폼 활용 →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

❷ (IPEF) 美 주도 인태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참여 → 위기대응 메커니즘 마련, 공급망 복원력(resiliency) 증진 및 협력(Pillar 2) 강화

3 중국

(진단) 양국간 수출구조 동조화 + 對中 원자재 수입 의존도 심화
⇨ 對中의존도 완화, 소비재 등 유망분야 진출, 입체적 협력채널

1 對中의존도 완화 및 경합 분야 경쟁력 강화

❶ **(공급망 리스크 대응) EWS 고도화, 소·부·장 경쟁력 강화*, 비축·수입국 다변화 지원 등**을 통한 **공급망 안정화·다변화 지원 확대**

* 소재·부품·장비 핵심전략기술을 對日 100대 → 對세계 150대로 확대개편(10.18)하고, 세제(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검토), R&D 지원 확대('22년 8,010억원 → '23년 정부안 9,376억원)

❷ **(글로벌 재배치 지원)** 해외 생산기지의 **제3국 이전 수요**가 있는 **旣진출기업 대상, 제3국 이전*** 또는 **국내복귀를 위한 핀셋 지원****

* 제3국 진출수요 조사 → 1:1 상담, 현지투자정보 성공사례 공유, 제3국 진출 세미나 등
**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유망기업 30개社 선정('22.2월) → 現 3개 유치완료, 1개 진행중

2 소비재·서비스·친환경 등 고부가 유망분야 진출 지원

❶ **(소비재)** 실버(고령화)·엔젤(영유아)·싱글 등 **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발굴*, 맞춤형 마케팅 및 현지 밀착지원** 강화**

* (실버) 의료기기, 헬스케어, (엔젤) 영유아 교육, 패션, (싱글) 밀키트, 소형가전
** 소비재 거점무역관 지정(항저우·선전·상하이, '23上)하여 시장조사, 인증취득 등 지원

❷ **(서비스)** 금융, 환경 등 **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높은 분야**를 중심으로 **지원*을 강화**하고, **FTA 서투협상을 통해 추가개방 추진**

* 旣진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관 중소·스타트업 기업 진출 지원

❸ **(친환경)** 中 **2060 탄소중립 정책**에 발맞추어 스마트시티, 스마트팜, 신재생에너지, 그린 모빌리티 분야 등 **친환경 산업 수출 지원**

* 중국지역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개소, 친환경산업 수출상담회·파트너링 등 추진

3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입체적 한-중 협력채널 구축

❶ **(고위급)** 경제·산업·통상·에너지·환경 분야 등 **고위급 협력 채널의 정례적 개최**로, 中정부와 **실질협력 강화** 및 **안정적 기업 활동 지원**

❷ **(지방)** 中 **주요 지방정부**(광둥, 산둥, 장쑤, 허베이 등) 간 협력교류회, 韓 **지자체-中 2·3선 지방정부 간 교류 지원** 및 **핀포인트 매칭 확대**

❸ **(민간)** '한-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' 등 **민간 교류 활성화 지원**

2. 3대 전략시장 협력 확대

1 중동 — 에너지·인프라 분야 + 미래유망산업·스마트팜 등 진출 확대

1 정상경제외교 성과(사우디) 및 오일머니를 활용한 협력 확대

○ 유가 급등에 따른 산유국 중심의 투자여력 개선 모멘텀* 및 정상경제외교 성과와 연계, 에너지·인프라 분야 사업 진출 지원

* (네옴시티) Saudi Vision 2030 중점 프로젝트(5천억불 규모)로 에너지 및 교통, 과학단지, 제조, 엔터테인먼트, 주거 프로젝트로 도시 전체 스마트 기술 적용

- 발주처 및 정부인사 방한 초청 등 G2G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,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고위급 면담 등 추진

2 脫석유 및 제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여 미래 유망산업 진출 확대

○ (미래유망산업) 에너지 다변화(탈석유) 및 제조업 육성 확대* 노력에 맞춰, 합작투자 등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지원 강화

* (사우디) 'Vision 2030'을 통해 자동차, 조선, 의료, 방산 등 중점 제조업 육성
(UAE) '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' 등 핵심제조업 집중 육성정책 시행

○ (스마트농업) 코로나19로 식량 공급망 타격에 따른 첨단농업 투자 수요에 따라, 유망기업(농식품부)-수요(코트라) 발굴 및 진출 지원

- GCC 지역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 시장개척·홍보* 확대로 현지 바이어 발굴·연계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

* UAE · 오만 · 쿠웨이트 지역 내 실내 농장 구축 사례('22) 등

2 중남미 — FTA 및 공급망 협력 강화, 바이오·소비재 진출 확대

1 중남미 거대 신시장 확보를 위한 FTA 및 공급망 협력 강화

❶ (FTA망) ❶멕시코,* 태평양동맹(PA)**, 에콰도르, 메르코수르** 등 주요국과 신규 FTA 체결, ❷칠레, 중미 등과 FTA 고도화 추진

* 우리나라 10대 수출국(대만·홍콩 제외) 중 유일한 FTA 미체결국('21년 기준 113억불)
** (PA) 멕시코·칠레·콜롬비아·페루, (메르코수르) 브라질·아르헨티나·우루과이·파라과이

❷ **(공급망)** 칠레·아르헨티나(리튬), 브라질(니켈), 멕시코(무수불산) 등 **주요 자원부국***과 배터리 등 **핵심 산업의 광물협력 강화**

* [리튬] (칠레) 세계 매장량 1위 생산량 2위, (아르헨티나) 세계 매장량 3위 생산량 4위

※ **'22.10월 국무총리 중남미 순방**시 칠레와 광물개발·밸류체인 구축 MOU 체결

2 바이오·의료 및 한류·소비재 진출 확대

❶ **(바이오·의료) 취약한 의료여건 개선**을 위해 **바이오·의료 공공수요 증가 → 대형전시회 연계 상담회, 공공조달 입찰 지원***

* (예시) 멕시코 보건청(INSABI) 공공조달 입찰 지원(기업발굴, 계약체결 지원 등)

❷ **(한류·소비재) 인구 6.5억명, 평균연령 29.6세의 젊은 소비시장 대상, 한류붐**을 활용하여 **온라인 입점,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강화**

3 EU 원전·방산 수출 확대, 친환경 정책에 따른 기회·위기 대응

1 폴란드 등 원전 · 방산 수출 확대

❶ **(원전)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**('22.10월 MOU) 등 계기, **유럽 원전시장으로의 진출**과 함께 **원전기자재 수출 지원* 확대**

* 원전 GP, 현지 지사화 등을 통한 핀포인트 지원, 금융·마케팅·인증 등 지원 강화

❷ **(방산)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** 등 **지정학적 리스크**에 따른 유럽 주요국의 **방산 수요증가에** 대응한 **지원사업 추진**

* (예) 대형무기·방탄복 등 방산전시회('23.9월, 폴란드) 한국관 참여, 국내초청 상담회

2 친환경 산업 진출 확대 및 CBAM·ESG 등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

❶ **(친환경) 세계 에너지 위기** 속 급부상하는 **친환경 수요에 대응 → 에너지효율 제품, 에너지전환 신산업 분야 진출 집중 지원**

❸ **(비관세장벽) CBAM***, **의료기기 인증 및 에너지효율기준** 강화, **ESG 실사 의무제도** 등 신규 도입중인 **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**

* (탄소국경조정제도) '23년부터 전환기간(배출량 보고의무, 3~4년)을 거쳐 시행 추진中

2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

1. 주력·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

□ **(맞춤형 중점 지원) 15대 주력업종**(총 수출의 78.2%, '21년) 중 **수출 비중이 높고** 미래 **성장잠재력이 높은 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**

❶ **(반도체) 반도체 생태계 펀드**조성(3천억원, 23,上), **팹리스 육성** 지원, **재정지원**(1조원)·**세제지원 확대** 등 전폭적 지원

❷ **(디스플레이)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** 및 **인력 양성** 등 생태계 강화 등

❸ **(조선) RG 추가발급 추진** 및 **특례보증**을 통해 **수주애로를 해소**하고, **근로시간 유연화·외국인력 공급 확대** 등 추진

*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(22년 6.9만명 → 23년 11만명) 특별연장근로 활용가능기간 한시확대 등

❹ **(이차전지) 핵심광물 확보**를 위한 **수입선 다변화** 등 안정적 공급망 강화 방안을 담은 **민·관합동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**(11.1) 이행

□ **(지원체계) 「산업전략회의**(산업부장관)**」, 「수출투자지원반**(주력산업) 등을 통해 **65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*** **신속이행, 애로 해소**

* '22~'26년간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자동차 등 **10개 업종 민간 투자계획 수립**

□ **(산업대전환) 초격차 유지** 및 **제2의 반도체 육성**을 위해 **산업 체질 개선을 지원**하는 **맞춤형 민관합동 전략 수립**('23.5월)

< 제조업 업종별 경쟁력에 따른 대응전략 >

① **(절대우위 산업**: 반도체·디플**) 신속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지원**하여 **초격차를 유지**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한 **기술·인력 보호**에도 만전

② **(글로벌 우위* 산업**: 이차전지·자동차 등**)** WTO, 미-EU 무역기술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**중국과의 경쟁 왜곡 가능성을 차단**하고, **중국시장 개방 유도**

* 중국 시장에서는 열위,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위인 산업

③ **(경합·열위 산업**: 조선·철강·기계·섬유 등**)** 디지털·스마트화 등 **첨단기술 전환을 위한 정부지원**을 확대하고, **친환경·ESG 등 새로운 이슈**를 계기로 **비교우위로 전환**

2.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

□ 부처별로 ICT·콘텐츠 등 유망산업에 대한 **수출활성화 전략을 추진, 「수출지원협의회」**를 통해 정기적으로 **이행 점검**
※ 부처별 소관산업 분야 '23년 수출활성화 전략 旣수립【별첨】

□ **(유망분야) ICT·바이오, 농수산식품, 관광·콘텐츠 등 신규 유망분야**

❶ **(ICT) 글로벌 창업 지원, D.N.A**(Data·Network·AI) **분야 대중소 동반 진출, 온라인전시관 운영**을 통한 **디지털 서비스** 판로개척

❷ **(바이오)** 자국 생산 및 규제 강화 등에 따른 **국별·지역별 맞춤 대응, 수출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***, **현지 판로개척 강화**

* 바이오헬스(제약·의료기기·화장품 등)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&D 3.5조원('21~'30) 지원

❸ **(농식품)** 딸기·김치·인삼류 등 **전략품목 육성, 물류·통관 지원 강화, 한류·온라인** 등 글로벌 트렌드 활용 **마케팅 강화**

❹ **(수산물)** 내수기업의 **수출기업화**, 품목별 **대규모화** 지원, **국제 인증 취득지원**,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, 한류·온라인 마케팅 강화

❺ **(콘텐츠·관광) 해외진출 종합 컨설팅**, 콘텐츠 **수출전문인력 양성,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 운영, 해외홍보관** 개관('22.12월) 및 **K-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**으로 외래객 유치 확대

□ **(전략분야)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, 수요국 맞춤형 패키지 진출**

❶ **(원전) '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'**를 통해 **수출대상국별 방산, 건설·인프라, IT 등 패키지 수출전략** 마련, **원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**

❷ **(방산) '방위산업발전 협의회'** 운영 활성화 및 **'유형별 방산협력 패키지(안)***'** 마련, **수출전담조직 신설, 한미 방산협력** 확대

* 완제품 패키지(무기체계 등), 공동개발형(+현지법인 설립, 운용국 협의체), 기술이전형

❸ **(인프라) '해외건설 수주지원단'** 구성, **주요 사업별 패키지 진출 전략 수립**(~'22.12), **금융확대**(KIND 자본금 상향, 민간금융 활성화 등)

❹ **(환경) 그린 ODA 사업 발굴·지원,** 범정부적 **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** 추진, **해외 현지 인·검증 취득** 및 **실증화** 지원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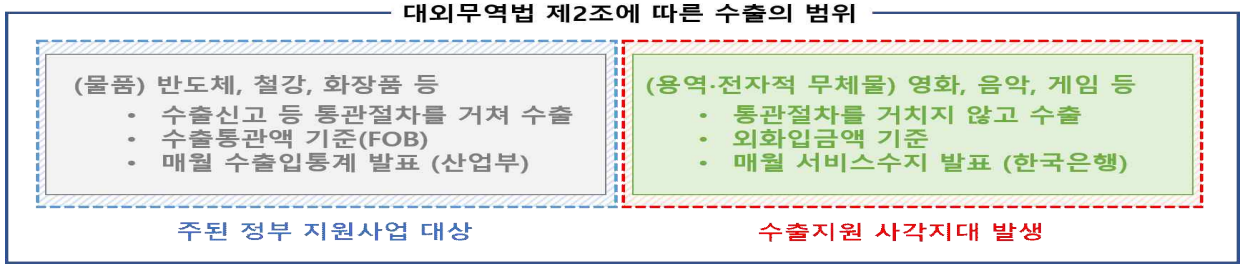
【 분야별 '23년 수출 목표치 】

분야별		부처	21년 실적	22년 실적[e]	23년 목표	비고	주요 품목
유망 분야	ICT	과기부	2,276억불	2,342억불	-	-	반도체· 디스플레이· 휴대폰 등
	바이오· 의료	복지부	257억불	266억불	280억불	+14	의약품· 의료기기· 화장품 등
	농식품	농식품부	85.6억불	90억불	100억불	+10	라면·꿀·김치 등 농축산물
	수산식품	해수부	28.3억불	30억불	32억불	+2	김·참치 등 수산물
	문화 콘텐츠	문체부	136억불	150.2억불	166.1억불	+16	게임, 캐릭터, 방송, 음악 등
전략 분야	방산	국방부	72.5억불	-	-	-	전차·자주포 등
	해외건설	국토부	306억불 (수주액 기준)	300억불	300억불	-	해외인프라· 도시건설 등
	환경산업	환경부	15,864억원	15,864억원	16,000억원	+136 억원	하수시설, 미세 먼지 저감 등 플랜트, 제품/장치

3. 「수출지원 사각지대」 해소 및 지원 확대

□ (**현황**) 대외무역법 제2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나 **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출실적*** 및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**"수출지원 사각지대" 존재**

* '21년 기준, **無통관 수출액**은 **1,211억불 이상**으로 추정(총 수출액 중 **약 16%** 차지)



□ (**문제점**) **부가가치·고용창출**에도 불구, **수출지원 대상에서 소외**

○ 통관없는 수출에 관한 **정확한 통계가 없어**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어렵고, 수출실적 발급도 어려워* **수출지원사업 참여에 제약**

* 전체 無통관 수출액 대비 수출실적 증명발급 비율 :
('16) 2.5% → **('17)** 3.0% → **('18)** 3.9% → **('19)** 3.2% → **('20)** 4.7% → **('21)** 3.6%

○ 무역금융·마케팅을 비롯한 수출지원 사업이 통관수출 중심으로 구성되어 **수출산업 구조의 불균형·수출 기업간 형평성** 문제 야기

‣ **(현장의 목소리)** 수출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문제 발생 (SW 업계간담회, 22.8월)

□ (**개선방안**) ①**無통관수출 통계 구축** 및 **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** (대외무역법 개정, '23.上), ②**無통관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강화**

○ **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·가공**하여 **숨어있는 수출에 대한 집계 및 통계시스템 구축** ('23.上 시범운영 → '23.7월 본격 가동)

- **수출실적 확인기관을 확대**하여 실적발급 관련 **기업편의 제고** (현재 한국무역협회, 관광협회, 소프트웨어협회, 해운협회만 발급 가능)

○ **無통관수출 신용보증 대상 확대**(無통관 2개 업종 → 全업종), **마케팅 지원 강화**(콘텐츠, 교육서비스 등 無통관 품목에도 브랜드-K* 부여 등)

* 中企제품에 브랜드-K를 부여하고, 지원사업 참가 시 가산점 등 혜택 적용('22년 300개 지정)

4. 무역금융, 인증,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 확대

1 자금애로 해소, 상반기 수출지원 조기 집행 등 전방위 총력지원

1 (금융지원) 기업별 수출 신용보증 한도 확대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우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경색 완화

○ **(한도상향) 기업별 ①수출품 선적前 수출신용보증 및 ②수출채권 매입보증 한도확대**(무보, '23) → 여신한도 확대 및 채권 조기 유동화

* ① (현재) 중소 70억원·중견 100억원(8.31대책) → (개선) 중소 100억원, 중견 200억원
** ② (현재) 중소·중견 5백만달러 → (개선) 중소 7백만달러, 중견 10백만달러

○ **(공급확대) '23년도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**하고 **상반기에 조기 집행**될 수 있도록 **노력**

* ('23년 지원계획) 무보 최대 260조원, ('22년 공급계획) 신보 13.5조원

2 (예산 조기집행) 수출지원기관(금융지원기관 제외 총 10개)* **'23년 지원 예산**(마케팅·인증·물류 등)**의 60% 이상(약 8,100억원)을 상반기 집중 투입**

* 코트라, 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보건산업진흥원 등

○ 특히, **코트라**의 경우 상반기內 **수출바우처(471억원)를 전액 발급**하고, **해외전시회 예산을 집중 투입**하는 등 **상반기 중 70% 조기 집행**

< '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계획 (정부안 기준) >

구분	'23년 예산(정부안)	상반기 집행계획	집행률
수출지원기관(10개)	1.31조원	8,100억원	61.8%
코트라	**1,900억원**	**1,330억원**	**70%**

2 통관, 지재권, 인증 등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

□ **(통관) 보세제도 규제 혁신***, 목록통관 허용세관 확대(3개→ 전국 34개, '22.12월)로 **전자상거래 활성화, 해외통관애로해소**를 위한 G2G 협력 강화

*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R&D 센터로 상시 반출입 허용 →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효율성 제고('22.11)

□ **(지재권) 해외상표 무단선점 대응, 위조상품 온오프라인 유통차단 강화, 유망중소기업·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진출지원**

□ **(인증) 의료제품 GMP 실사 상호인정, 국내 식의약 규정 국제조화, 글로벌 규격·인허가 정보제공,** 의료기기 등 **수입장벽*** **해소 지원**

* **(조제분유, 중국)** 제품등록·현지실사, **(라면, EU)** 에틸렌옥사이드 규제, **(의료기기, EU)** MDR 시행

3 수출기업 애로 지속 발굴 및 체계적 관리 추진

□ **(기존과제) 「수출경쟁력 강화 전략**('22.8월 발표)」에 포함된 **핵심규제·애로 총 139건** 중 **연내 해결과제**(33건)* **정상 추진**(現 **30건 조치 완료**)

* (사례) 바이오납사 수입부과금 면제(9월), 디스플레이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(10월), R&D 물품 반출입절차 완화(11월), 의약품원재료 등 수입검역절차 개선(12월 예정)

□ **(추가과제)** 수출현장지원단('22.9월~), 민관합동 수출상황실('22.10월~)을 운영하며 11월까지 **수출기업 규제·애로 총 256건을 접수**

○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을 통해 **자체해결이 가능한 과제**는 **즉시 처리**하고(개별기업 애로 등 90건 조치完), **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**는 **「경제규제혁신TF」** 등을 통해 **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검토**

< 주요 현장애로 (예시) >

❶ 중고차 수출 제출서류 일원화, 수출이행 신고기간 연장 (국토부)
❷ EU 의료기기 MDR 인증 지원 확대 (복지부)
❸ 사후면세점 납품 수출실적 인정 (산업부)

3 全부처 ·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 강화

※ "**모든 부처**가 **산업부化 되어,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주시기를 당부**" (대통령 말씀, '22.10,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)

1. 全부처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·강화

□ (**현황**) 현 **정부조직**(18부·4처·18청) 가운데 **수출유관부처는 총 14개***

* (산업부처) 과기부, 국방부, 문체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(지원부처) 외교부, 중기부, 식약처, 관세청, 특허청

○ 수출전담부서 없이 소관품목 담당과에서 **1~2명이 수출업무를 담당**하는 **경우***, **자율기구제도****를 통해 **최근 신설된 경우**도 **존재**

* (과기부) 정보통신산업정책과, (복지부) 보건산업진흥과, (환경부) 녹색산업혁신과 등
** (자율기구) 부처의 국정과제, 긴급현안 조직 지원을 위해 조직자율성 확대 방안 시행(최대 1년)

< (참고)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한 부처별 수출조직 신설 사례 >

부처	조직 (신설, 인원)	주요 추진업무
국방부	▸ 방위산업수출기획과(10.31)	▸ 방산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및 방산수출 현안에 적시적으로 대응
산업부	▸ 원전수출지원과(10.5)	▸ '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활동, 원전수출전략추진위 운영·지원
식약처	▸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(8.31)	▸ 식품, 의약품·바이오, 의료기기, 화장품 등 식의약품의 국제협력·수출지원 강화

□ (**문제점**) **수출지원체계가 미흡**하여 **체계적 수출지원에 한계**

⇨ **부처별 수출지원 전담체계 보강, 국내-해외 조직간**(부처간/중앙-지방간/국내-해외지원조직간) **수출연계 기능 및 협업 강화 필요**

□ (**개선방안**) 각 **부처별 수출지원체계 보강 및 부처간 협업 강화**

❶ **(협의회) 「수출지원협의회」***를 매월 개최, 부처별 **수출지원 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현황 점검, 애로해소 등** 추진

* (참석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, 14개 수출유관부처(산업부처·지원부처) 실·국장급
(논의) ①업종별 수출동향/지원현황 발표, ②협업과제 점검, ③업계애로 건의→소관부처 답변

❷ **(체계강화) 수출전담부서 지정,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**하여 **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·강화 추진**

❸ **(협조체계) FTA지원센터**(18개)와 **범부처 수출지원기관**이 연계한 지역별 **'무역통상진흥협의회*' 구성, 현장의 통상애로 소통채널 구축**

* (참여기관) 지자체, 무협, 코트라, 무보, 중진공, 산단공, aT센터, 수은, 기보 등

- **(해외협조체계) 재외공관**을 **중심**으로 유관지원기관 **협조체계 일원화**를 통해 현지 정부 및 기관 대상 **경제외교 세일즈 강화**

* 재외공관 중심 참여기업 및 공공기관·코트라 무역관·해외건설협회·KIND 등을 포함한 재외공관 기업지원활동협의회,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, 방산중점공관 활동 활성화

❹ **(협업과제) 범정부 대표 협업과제*** **도출** 및 **주기적 진행상황 점검**

* "범부처 수출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"('22.11.10, 산업부)시 12건 접수

< 범정부 수출지원 협업과제 예시 >

부처	협업 요청사항
농식품부	▸ 농식품 **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활용방안 모색**(해수부·국토부 등) ▸ K-박람회 등 다부처 협업 공동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긴밀한 협업
국토부	▸ **해외건설 금융 제도개선**을 위한 기재부, 금융위, 수은 등 관계기관의 협력 필요
환경부	▸ 국내기업 해외진출 효과 제고를 위해, **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ODA 패키지형 사업** 추진(외교부)
식약처	▸ 우리 진출기업의 **식의약 규제협력 수요** 및 **해외인허가 제도 등 현지정보 공유**(복지부, 산업부)
특허청	▸ **국내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침해**, 해외기업의 지재권 분쟁 제기 등 **공동대응**(문체부)

❺ **(애로해소)** 산업부 중심으로 추진중인 현장애로·해소를 지원하는 **'수출현장지원단' 격상**(단장: 1급→통상교섭본부장) **및 각 부처 참여확대**

* (수출현장지원단, 9.14~) 현장을 방문해 수출기업 애로해소(단장: 무투실장, 총 10회 운영), (수출상황실, 10.6~) 수출애로·업종별규제 상시접수 ⇨ 총 256건 애로접수('22.9월~현재)

- **'23년 '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' 간담회 → 애로해소 과제 관리**

* 유관부처·기관 합동으로 지역별 '무역통상진흥협의회' 발족 계기 순차 방문하여, 지역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접수 및 즉각 해소 지원, 수출지원시책 설명회 등 추진

2. 全부처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역량 강화

◈ KOTRA, 무보, 수은 등 **주력 수출지원기관은 국가 공통 인프라**
→ 新**성장 수출 동력 발굴을 위해 역량 강화 및 연계·협업 확대**

□ (**현황**) **수출지원기관은 18개**로 지원방식 및 업무범위에 따라 **△종합지원기관, △품목별 지원기관, △기능별 지원기관**으로 분류

○ 코트라는 **해외 네트워크**(84개국, 129개소 무역관) 및 마케팅·물류 등 **全주기 지원**, 무보·수은은 **무역금융**, 중진공은 **中企 지원**

< 수출지원기관 현황 >

유형	기관명	합계
종합	**코트라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**, 무역협회	3
품목 전문	플랜트산업협회, 해외건설협회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환경산업기술원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, 농수산식품유통공사, 국방기술진흥연구소, 콘텐츠진흥원, 보건산업진흥원	9
기능 전문	**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** 지식재산보호원, 한국관광공사	6

□ (**문제점**) **코트라, 무보** 등 **역량있는 대규모 조직의 기능**이 **주력 품목 지원에** 집중되어 있고, **他 지원기관과 협업·연계** 등 필요

❶ 수출지원이 **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** ⇨ **유사 사업 및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**이 발생하고, **각 기관의 장점 결합**에 한계

* 건설, ICT 산업분야 단발성 수출상담회 ↔ 통합형 글로벌프로젝트 플라자(GPP),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·GGHK) 중복

❷ 다수의 수출지원기관은 **해외조직이 미비**하거나 **수출지원 사업 운영 경험이 부족** ⇨ **新시장 개척 지원·수출동력 발굴** 등에 한계

❸ 코트라 또한 지원하는 **품목 범위가 넓고 해외마케팅 지원에 집중** ⇨ **新성장 유망 분야 전문성 확보** 및 **유효적 지원에 한계**

* (예시) 핀테크 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시 해당 금융산업 분야 전문성 한계 및 해외시장 특수성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**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여력 부족**

□ (개선방안) **코트라·무보 등 주력 수출지원기관 중심**으로 분야별·기능별 지원기관의 **역량 강화를 지원하고, 기관간 협업·연계 확대**

❶ **(아카데미) 수출지원기관을 대상**으로 **"아카데미"를 신설***하여 **수출 실무 및 지원업무, 무역금융** 등 전문성 강화 지원

* (코트라) 수출 실무(계약·통관 등) 및 수출 지원 업무(사업 기획·운영 등) 교육,
(무역보험) (공통교육) 무역금융 구조, 최신 금융지원 정책, 글로벌 금융·자본시장 동향 등,
(특화교육) 중소형조선 RG, 반도체 등 주력 산업 생산설비 구축 지원 등

❷ **(연계 강화) 정보공유 및 인력·조직교류 확대**로 **연계 강화**

- **(정보연계) 「해외경제정보드림」***을 통해 기관간 주요 정보를 연계(68개 → 80개)하여 **정보공유 및 제공 기능 강화**

* (예)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: 코트라+해외건설협회+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- **(인적교류)** 新성장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**기관간 인적 교류**

* (예) 코트라↔보건산업진흥원 : (코트라) 의료산업 전문성 보강, (진흥원) 마케팅 역량 보강

- **(해외조직)** 바이오·방산 등 **수출전담해외조직이 부족한 기관은**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심의 **원-루프(One-Roof) 지원체계*** **활용 확대**

* '22년 코트라 무역관 16개소에 파견·입주기관 20개(38명) → 원루프 협업으로 시너지 창출

❸ **(협업사업) 해외전시회 부처합동 참가,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, 지역·산업별 수출특화인력양성* 등 협업과제 추진**

* (코트라) 장소·콘텐츠 제공 등 운영, (여타기관) 강사 초빙, 커리큘럼 자문, 현장 실무 제공 등

- **(해외전시) 콘텐츠·상품을 결합**한 **합동 박람회(K-박람회)** 활성화 및 해외 주요 전시회에 **「통합 한국관*」 확대**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

* 코트라, 중소기업 중앙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등 / '22년 19개 → '23년 30개

- **(해외인증)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** 구축, 全기관 **지원사업을 연계**하고 **정보제공**부터 **컨설팅, 사업 신청**까지 원스톱 지원

* 국표원, 코트라, 무역협회, 중진공, aT 등 관계기관 간 추진 협의체 운영('23년~)

- **(인력양성) 지역·분야별**(例: 중국 소비재) **수출 특화인력** 양성

* (코트라) 장소·콘텐츠 제공 등 운영, (수출지원기관) 강사 초빙, 커리큘럼 자문, 현장 실무 제공 등

4 에너지 수입 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

1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

○ **에너지절약시설 투자**에 대한 **한시적 세제지원**을 **강화**하여 **기업**의 **자발적**인 **효율개선 투자 유도**

* '23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설비에 대해 가속상각 적용

○ 고금리 등을 고려해 **에너지 절약시설 설치**에 대한 **융자 지원 확대**

* 지원비율 상향(중소기업 기준 90→100%), 지원대상 확대(대기업 포함) 등 검토

2 에너지요금 단계적 정상화를 통한 가격 시그널 회복

○ 민생 여건을 고려하되, 물가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**내년부터는 요금 인상요인**을 **단계적으로 반영**

○ **에너지 취약계층**의 **부담 완화**를 위해 **에너지 바우처 지원 지속**

3 저소비-고효율 산업구조 정착을 위한 기술혁신 및 기반 구축

○ 다수 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효율 경쟁력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**효율향상 핵심기술 확보**에 **대규모 재원 투입**

* 「국가 효율혁신 프로젝트('에너지스타 프로젝트')」(수요관리 R&D 2천억원 활용) → (예시) 고효율 전동기, 대용량 히트펌프 등 개발 추진

○ 고효율설비 도입 등 **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향상 투자 지원**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**녹색 공정전환 보증**(신보)을 통해 지원 추진

4 에너지 한계기업 대상 "진단-개선-투자" 효율개선 패키지 지원

○ **(진단)**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*의 **에너지다소비 중소기업**, 주물·도금·열처리 등 **뿌리업종** 대상 **에너지 진단보조 추진** 검토

* 연간 500~2,000toe 에너지소비사업장(4,953개)은 에너지 진단의무가 없음

○ **(개선)** 에너지공기업 **효율향상의무화(EERS) 중소기업** 지원 **집중**, 효율혁신협약 대기업(KEEP 30)의 **협력업체 효율개선 지원 확대***

* 협력업체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로 발생한 에너지 절감실적을 대기업 실적으로 인정

○ **(투자)** 에너지 진단 완료 중소기업 대상 **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우선 지원** 및 **우수 ESCO 매칭 활성화**

[별첨]

수출유관부처별
‘23년도 수출활성화 방안

1 ICT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Ⅰ. '22년 수출성과 및 평가

□ **(기기) '22년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실적**을 달성(1,224.3억불, 18.8%↑)하였으나, 수요 감소 및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**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**

* 수요 감소로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(△16.2%), 디스플레이(△9.6%), 컴퓨터·주변기기(△30.9%) 감소세, 신제품 출시 효과로 휴대폰 수출은 증가(13.0%)

□ **(서비스)**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 상승으로 ICT 서비스 수출은 **지난 5년간**(17-21년) **연평균 18.9% 성장**하였으나,

○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**수요 감소** 및 **'21년 고성장**(30.4%)의 **기저효과** 등으로 **'22.1~8월 누적기준 24.0% 감소**

*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SW(△30.5%), 정보서비스(△37.7%), 통신서비스(△5.7%) 감소세

Ⅱ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**(세계시장)** '23년 세계 ICT 시장은 **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성장**에 의해 **전년대비 5.1% 증가**한 4조 7천억 달러 **성장 전망**(Gartner, '22.9)

○ **(기기)** 경기 침체로 PC, 휴대폰 등 **IT기기** 시장의 경우 **0.6% 감소**할 전망

○ **(서비스) 디지털 전환**에 대한 **기업 요구의 증대**로 관련 **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** 각 11.3%, 7.9% **성장 전망**

□ **(국내시장)** 원자재상승,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**ICT 기기의 글로벌 수요 둔화**와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로 **SW 성장세 유지** 전망(KISDI)

○ **(기기)** 휴대폰, PC 등 기기의 **글로벌 수요 둔화**와 메모리 반도체와 LCD 패널 **성장률이 급감**하며 **전년대비 1.3% 감소**할 전망

○ **(서비스)** 클라우드, AI 등 **디지털 전환 수요가 지속**되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**신규 IT 투자가 감소**하면서 **제한적 성장 전망**

Ⅲ. 수출 확대 방안

<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목표) 총수출 : ('21) 2,276.2억불 → ('22) 2,342억불(예상)

◇ (방향)

ㅇ 대·중·소 협업 진출 확대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디지털 성과 확산

ㅇ 유망 성장품목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통계 신설

1 민간주도형 해외진출 연대모델 발굴 · 지원 확대

ㅇ 국가 경쟁력이 있는 **D.N.A*** **분야 대·중소기업**간 협업 또는 **국내·국외기업간 합작법인** 설립 지원으로 **동반성장**이 가능한 해외진출 **지원 확대**

* 글로벌 비교우위가 있는 Data·Network·AI 분야의 융합서비스(디지털헬스·제조 등)

- **우수한 기술·제품**을 보유했으나 해외진출 **경험, 인프라**가 부족한 유망 기업의 수출기업化를 위해 기업 **협업형 해외진출 프로젝트 확대**

< 기업 규모별 기대 효과 >

기업구분	기대 효과
대기업·중견기업	- 기존 사업영역과 차별화된 신규서비스(혁신기술) 분야 사업 추진 경험 획득
중소기업	- 해외진출 자산(정보, 장비, 거점 등) 공동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보

- 글로벌 현지 파트너, 국제기구 등을 **거점으로 활용**하여 기술매칭형 조인트벤처(JV) 등 **해외기업과의 파트너십 강**화

2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의 마케팅 지원 확대

ㅇ 코로나19 이후 재개되는 **오프라인 전시회** 및 **수출상담회**에 국내 기업이 **적극 참여**하도록 전시참가 **지원 확대**

* (국내) 월드IT쇼(서울, 국내 최대 IT쇼) (국외) CES(미국, 가전), MWC(스페인, 통신), K-Global@(실리콘밸리·북경, 스타트업), HIMSS(미국, 의료), NAB(미국, 방송장비) 등

ㅇ VR 전시장 및 부스, 비대면 컨퍼런스, 영상회의 등의 기술을 활용한 **온라인 전시관**(WoW, World Online shoW) **기능 고도화**

* (전시분야) 인공지능(IoT), 빅데이터·클라우드, 네트워크(5G), 메타버스(AR, VR, XR), 자율주행, 스마트헬스케어, 스마트시티, 핀테크, 정보보호, 로보틱스 등 총 10개 분야

- 글로벌 ICT포털*과 연계하여 **해외시장 정보(국가별/품목별) 제공 병행**

  * 디지털 분야 수출 **유망 국가별·품목별**(45개국·20개 품목) **정보제공**

- 월드IT쇼 등의 **오프라인 전시회 연동**을 통해 신규 기업 선정 및 **전시부스 확대**하여 **기업홍보 강화** 및 **해외바이어 유입 확대**

3 수출 유망분야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

○ **성장 가능성**이 높은 **5대 분야 대상 맞춤형 해외진출** 지원(R&D · 마케팅 등)

< 글로벌 유망성장 분야 >

분야	지원내용
① 인공지능(AI)	**인공지능주치의**(닥터엔서) 수출 사례를 기반으로 **관련기술 고도화** 및 **연계 서비스의 해외진출** 촉진
② 데이터	데이터 활용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**스타트업 발굴· 솔루션 현지화** 지원
③ 클라우드	SaaS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**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** 추진
④ 정보보호	중견·중소 **정보보호 기업 해외마케팅** 비용지원 및 **타켓 집중형 상담회** 운영
⑤ 디지털콘텐츠	디지털트윈, 헬스케어 등 주요 분야와 **메타버스 기술** 등이 결합된 **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**

4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통계 신설

○ **디지털 전환 가속화**에 따른 **산업구조 변화***를 반영, **디지털 산업 분류 세분화**를 통해 **디지털 경제 진전 현황 파악 및 정책분석**을 위한 **'디지털 산업 통계'** 신설 추진('23~)

* 기존 전통산업과 디지털이 융합되어 새로운 산업 등장(예 : 숙박·운송·의료의 디지털 플랫폼 등)

** OECD 가이드라인('20), G20('20) 등에서 디지털 경제(산업)의 범위 제시

- 디지털 산업 분야의 **디지털 전환 현황** 및 **산업 실태 파악**을 통해 디지털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Ⅳ. 협조 요청사항

□ 디지털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(7.22일, 기업 간담회 내용)

【 건의사항 주요내용 】

① **(R&D)**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원자재·부품 수급에 있어 단가인상 및 수급지연 애로가 있어 **장기적인 시각의 핵심부품 R&D 지원 필요**

② **(인재)** **중견·중소기업**의 경우 **우수한 인재 유치** 문제가 시급하며, 특히 기존에 소외받았던 **ICT제조업계 및 지역 기반기업**에게 인센티브 필요

③ **(마케팅)** 해외 판로개척에 중소기업의 한계가 있어 **마케팅·홍보** 및 **해외 네트워킹 연계** 등과 관련된 정부의 **지원 확대** 요청

④ **(가이드라인)** **국가핵심기술**로 분류될 경우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 **기술유출 해당여부 가이드라인 제시** 필요

⑤ **(규제)** 국내·외 잦은 **인증요구 및** 출국 시 **비자발급거부** 등 **지나친 규제**로 인해 해외진출에 제약

⑥ **(시장구조)** **대기업·중소기업**이 **공정**한 환경에서 **상생**할 수 있도록 관행개선 필요

1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

○ **(외교부·법무부)** 수출준비단계 기업의 해외진출과 **현지 사업 영위**에 필수적인 **영사(비자취득)·노무관리(현지고용 등)** 이슈 해결을 위한 지원* 확충

* 현지 기업의 수출대상국 체류·거주 비자 요건완화·발급절차 간소화·취득 정보제공 및 사업운영 시 노무관리(근로계약, 관련 분쟁 해결) 이슈 해결 컨설팅 제공 등

○ **(산업부)** 디지털 기업 대상 **산업기술보호법**(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) 저촉 예방을 위한 **상세정보***와 **사례기반 가이드라인** 및 관련 **컨설팅 지원 강화**

* 기술 지정·변경 및 해제, 지정 기술 일몰기한 등

** 카메라, 레이저, 라이다(레이저 레이더), 정밀위치탐지 시스템 등 상당수 유망 수출분야 제품·서비스 기반 기술이 해당하며, 국외 원천기술 개발 후 한국서 추가 개발해도 법 적용

○ **(산업부)** SW 기업 전략물자제도 대응을 위한 **정보제공 강화** 및 **전략물자 수출지원**에 대한 긴밀한 협조 요청

* ① SW기업 대상 전략물자관리제도 상세 가이드라인 배포, 교육, 컨설팅 ②전략물자 수출심사 기업특성(업종, 기술, 고객사 등) 관련 정보 수집 및 공유

○ **(특허청) SW고성장클럽*** 지원기업들이 핵심·원천 특허를 선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**특허청 지원 IP R&D 사업 연계**

* SW 고성장클럽: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 대상 글로벌 시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공

○ **(중기부) 대·중견·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** 기업에 대한 지원연계

- 중기부의 **'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'**과 과기부 소관 대중소 동반 **해외진출 사업 연계**하여 ICT 혁신기업 **판로 확대**

○ **(산업부) 국가전략기술 분야***에 대한 **범부처 지원****을 연계하여** 기술사업화에서 더 나아가 **글로벌 진출**을 위한 **집중 지원체계 구축**

*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차세대 원자력, 첨단 모빌리티, 우주항공·해양, 첨단 바이오, 사이버보안, 수소, 인공지능, 차세대 통신, 첨단로봇·제조, 양자

** 범부처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대상에 글로벌 진출 사업화 기업도 포함

2 수출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

○ **(코트라) 해외 전시회・국제컨퍼런스 연계개최**를 통한 **종합 마케팅** 지원강화 및 IP-DESK 등 **코트라 해외 무역관**과 **과기정통부 해외거점**(IT지원센터) **연계**하여 **해외진출 성과 극대화** 모색

○ **(무보·수은·기보 등) 글로벌 성장 가능성**이 **높은 ICT 융복합 분야** 중소·벤처 기업에 대한 **금융 패키지*** 지원확대

- 보험.보증 상품에 대한 **한도 증액, 대출 우대 금리 지원** 요청 등

* ICT Growth 사업 : 유망 ICT 전문기업을 발굴하여 **투·융자 자금을 제공**하고 현지 거점 기반 기술·시장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**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**

○ **(전략물자관리원)** 'SW **전략물자 대응 가이드**' **공동개발·보급**하여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 및 SW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, 허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**컨설팅 기회 확대**

○ **(대외경제정책연구원)** 디지털전환 등으로 인한 통상구조 변화에 따라 데이터 이전, 플랫폼(OTT), 디지털 제품·서비스 관련 **통상환경 변화** 및 국제규범(관세, 디지털세, 신기술 표준,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) 등 **유관 정보 제공 강화**

2 보건 (의약품·의료기기·화장품 등) (보건복지부)

Ⅰ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('22년 3/4분기) 보건산업 수출은 **총 24.3조 원**(190.8억 달러*)으로 **소폭 증가*** 하였으나, **코로나 확산세 진정** 등으로 **수출 감소세로 전환 중**

(전년 동기 185.7억 달러 比 3.3%↑)

* 의약품 8.2조(64.6억 $, +34.6%), 의료기기 8.4조(65.8억 $, △3.9%), 화장품 7.7조 (60.4억 $, △11.5%)

○ ①바이오시밀러 및 백신 위탁생산(CMO) **제품의 수출 증가**, ②**코로나 확산세가 진정**되며 **진단제품**(전체 의료기기 수출 약 44% 차지) **수요 감소** 및 ③**화장품 분야 중화권 수출 감소 및 규제 강화*** 등에 기인

* 중화권(중국+홍콩 60%)에서 21.9% 감소, 화장품 등록 인허가 요건 전면 강화('21.5월~)

○ **'22년 보건산업 수출**은 3/4분기 수준(3.3%)을 유지하는 **266억 달러 예상**

<보건산업 수출 현황 (2017~2021)>



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재가공('22.3월)

* **코로나19 영향**으로 **바이오의약품, 진단용 제품, 소독제 등의 수요 확대로 '20, '21년도 크게 증가**

□ (전망) 각국의 보호산업 기조 강화, 코로나 안정세 유지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 →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 대책 필요

○ (의약품) **바이오의약품**(전체 의약품 수출 약 43% 차지) **소폭 증가 예상**

○ (의료기기) 코로나 안정세에 따라 수출 비중 높은 **진단제품 수요 지속 감소 등으로 수출 감소 예상**

○ (화장품) 중국내 화장품 규제 등으로 **중국 수출 지속 감소 우려**되나, 미국, 유럽 등 **일상 회복 및 한류 확산으로 수출액 증가 기대**

Ⅱ. 수출 확대 방안

<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**(목표)** ('21) 257억 달러 → ('22) 266억 달러(추정, 3.3↑) → ('23) 목표치 280억 달러(5.4%↑)

◇ **(방향) 국가·지역별 맞춤형 대응 및 현지 판로개척 지원 강화 등 수출 확대 기조 유지**

- ㅇ 자국 생산 및 규제 강화에 따른 **국가별·지역별 전주기 지원**
- ㅇ 수출 잠재력이 높은 **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중점 분야로 육성**
- ㅇ 코로나 안정세 등에 따른 **수출다변화** 및 **전략국가 대상 진출 지원 확대**

1 자국 생산 및 규제 강화에 따른 국가별 · 지역별 맞춤형 대응

□ **(미국)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**(약 600조 원, 전 세계시장의 40% 차지)인 美 **바이든 행정부**의 **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** 등 **"행정명령*"** 대응

* 행정명령('22.9.12) → 자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(9.14, 총 28억 달러 투자(제조기반 17억, 공급망/혁신 8억, 상업화 2억 달러 등) → **자국 바이오산업 육성**을 위한 **현황 파악 및 전략 보고서 제출**('23.3월 예정)

ㅇ 다품종, 인허가 과정이 복잡한 **바이오 산업 특성** 고려시 **단기적 영향**은 **제한적**일 것으로 예상되나, **미측 정책방향 파악** 및 **대응** 필요

ㅇ **미 행정명령 후속 이행계획 발표에 대비**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**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, 후속 대응방안 마련**

*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지속 협의(대내는 전문가회의, TF운영, 대외적으로 **산업부** 한미 산업·공급망대화 채널 등 활용)

□ **(유럽) 유럽 의료기기 인증 기준 강화*** 등 **국제 인허가 및 규격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 대비**하여 **기업의 대응역량 강화**

* (舊)MDD → (新)MDR로 변경('21.5)으로 임상자료 및 시판 후 요건 강화('24.5월, MDD 무효)

ㅇ 강화된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**상시상담 및 정보제공, 기업 맞춤형 컨설팅*을 위한 「국제인증지원센터」 본격 가동**('23년(안) 1,000백만원)

* 수출기업별(0-20만$-100만$-이상) 최대 3,000만원, 총 32개사 지원

ㅇ 유럽 신의료기기규정(MDR)에 대한 교육·세미나 운영을 통해 **최신 규제 동향 및 맞춤형 정보 제공**('23년(안) 200백만원)

□ **(중국)** 중국(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46%) 내 수입되는 **화장품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*** 등 **허가요건 강화**

* '22.1.1.부터 신규 등록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, '24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, 중국 내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3개월 → 6~9개월로 증가

○ **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 전문교육, 수출지원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**을 위한 **수출지원 기구 마련 추진**

* 중국 규제강화 대응 기술컨설팅 및 안전성평가 교육, 수출국 다변화 종합컨설팅, 창업 및 브랜드 런칭 지원 등

○ 다빈도 원료 **안전성·효능 평가자료 제공** 및 국내 기업의 중국 등 **해외수출 시 제품 정보파일(P.I.F) 작성 지원**('23년(안) 1,860백만원)

2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

□ **(펀드 등 금융지원) 글로벌 블록버스터급**(연매출 1조원↑) **신약 개발 성공 사례 창출**로 **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**('23년(안) 10,000백만원)

○ **글로벌 혁신신약·백신 개발 투자**를 위한 **「K-바이오백신 펀드」 '22년 5천억원*** **결성을 시작**으로 **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로 조성**('22년~)

* (자금조성, 억원) 예산 500, 기존 펀드 투자회수금 500, 국책은행 1,000, 민간 3,000

□ **(R&D 지원)** 바이오헬스 **R&D 집중 투자로 수출 산업화의 기반 마련**

○ 제약·바이오, 의료기기 등 **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*** **지원**

* 국가신약개발 2.2조 원('21~'30),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1.2조 원('20~'25), 혁신성장 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 460억 원('23~'27)등 **3.5조 원 지원 예정**

□ **(전문인력 양성)** 의약품 수출의 핵심 품목인 **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인력 중점 양성**

○ **(제약)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인력양성**을 위해 **K-NIBRT 본격 실시**('22년 300명 → '23년 400명, '23년(안) 7,200백만원) **및 실무·실습 교육을 통해 생산 공정 기초인력 양성**(연간 250명, '23년(안) 2,072백만원)

* **합성·천연물 의약품 GMP 전문 교육시설 구축 중**('23년(안) 3,150백만원, ~'25)

○ **(의료기기)** 국제인증아카데미 운영(국제인증지원센터), 교육 및 세미나 등 의료기기 기업의 **국제 품질관리 및 인허가 획득 관련 전문가 양성 지원**('22년 60명 → '23년 120명)

○ **(화장품)** GMP·산업입문·수출 교육 등 업계 요구에 맞는 **맞춤형 인력양성 지원**('22년 1,180명 → '23년 1,230명, '23년(안) 442백만원)

□ **(국제연구·임상시험 지원)**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**해외 의료기관·기업과 공동연구, 수출기업의 임상시험 지원**('23년(안) 7,483백만원)

* '22년 공동연구 8개 과제 30억원, 해외임상시험 4개 과제 18억원 지원(복지부)

3 보건산업별 현지 판로지원 확대

□ **(현지거점 확대)** 국내 기업의 **해외진출 리스크 경감** 및 **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지 지원체계 강화**

○ **(제약)**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**미국 현지화 지원,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컨설팅 제공**('23년(안) 1,093백만원)

* 미국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, 임상, 인허가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('22년 100건)
* 보스턴 CIC 내 입주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가속화 지원('22년 10개사 임대료 지원)

○ **(의료기기)** 인허가 획득 상담, 현지 전시회 참가 지원 등 **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플랫폼* 운영**('23년(안) 570백만원)

* 인도네시아, 베트남(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), 미국(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) 3개소 운영 중

○ **(화장품)** 중소 화장품기업의 현지 유통망 구축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지원을 위한 **홍보 판매장*, 팝업부스 운영**('23년(안) 1,300백만원)

* 베트남, 러시아, 인도, 인도네시아 4개 도시

□ **(글로벌 판로개척 지원)** 국내 유망 수출기업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**맞춤형 기업 지원**

○ **(제약)** 인허가 단계 **컨설팅 소요비용 지원,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, 바이오벤처 위탁생산** 등의 **全주기적인 해외진출 지원**('23년(안) 1,050백만원)

* '22년 인허가(5社), 라이선싱(3社), GMP(1社), 위탁생산(3社) 지원(기업 당 100백만원 이내)

- 국내 기업의 **신약 개발 전략 지원**과 **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제약 전문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**('23년(안) 1,441백만원)

* 해외제약전문가 현장 컨설팅 218건, GPKOL 온라인 컨설팅 187건('22.10.31 기준)

○ **(의료기기)** 수출 유망기술·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**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기업 지원**('23년(안) 250백만원)

* 해외시장조사 비용, 마케팅 지원,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지원 및 시판후 임상자료 등 컨설팅 지원

○ **(화장품)** 해외 주요 화장품 시장에 대한 **수출절차, 인허가 규정, 유통정보, 마케팅 트렌드 제공**('23년(안) 528백만원)

□ **(국가별 협력 및 홍보)** 국가별 **보건협력 사절단 파견** 및 **해외 마케팅 행사**를 통해 **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·마케팅 활동 강화**

○ **(제약) "BIO KOREA 2023" 개최**('23.5월)를 통한 **기술·비즈니스 활성화** 및 **수출 기회 지원**('23년(안) 550백만원, 전년동)

* 국내·외 참가기업간 1:1 비즈니스 미팅 및 유망기업의 기술·제품, 연구성과 발표
* (바이오 코리아 2022) 52개국 625개사, 20,401명 참가/ 437부스/ 파트너링 730건

- 글로벌 VC 네트워크, 해외 전시회,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교류 협력 연계를 통한 **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 확대**('23년(안) 590백만원)

* 바이오유럽 한국관 운영(독일, '22.10.24~26), 제약바이오 국제 기술교류('22.11.9~11) 등

○ **(의료기기)**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제품을 **통합 전시*** 및 **IR(Investor Relations) 운영**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('23년(안) 550백만원)

* Arab Health(1월, UAE), KIMES(3월, 한국), MEDICA(11월, 독일) 전시회 통합전시관 운영 등

○ **(화장품)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·체험장**을 구축(서울 명동)하여 관광 명소화하고 **K-뷰티 브랜드 제고**('23년(안) 1,084백만원)

Ⅲ. 협조 요청사항

1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

○ **(산업부, 중기부 등)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강화***에 따른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**공동 대응 강화**

* 유럽 의료기기 인허가 규정 강화 실시(CE-MDR, '21.5) 및 기존 인증 무효화 예정(CE-MDD, '24.5)

- 인허가 획득 및 컨설팅 비용 지원,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지원 확대

* (산업부)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, (중기부)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등

○ **(문체부)** K-뷰티 홍보를 위한 **해외홍보관 다양한 협업 추진** 필요

2 수출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

○ **(코트라)** 각 부처 기관들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 자원을 상호 공유하여 **공동으로 수출 지원하는 방안 모색**

* 예) 국가별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현지 네트워크 공유, 현지 진출 관련 1:1 자문 제공, 국가별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, 수출상담회 개최 등 수출지원

○ **(중진공)** 바이오 기업 대상 **저금리 융자사업 확대 검토**

3 농식품 (농림축산식품부)

Ⅰ. '22년 수출성과 및 평가

□ **'22. 10월 누계** 기준 전년 동기보다 **5.7% 증가**한 **73.6억 불**

○ **(시장별)** 성숙시장인 **일본**, 유망시장인 **아세안·유럽** 중심으로 **증가**, **중국·미국**은 코로나 확산(中), 경기 둔화 등 요인으로 **소폭 감소**

* 일본 13.0억 불(전년 동기 대비 12.2%↑), 아세안 15.6(8.9↑), EU·영국 4.3(18.8↑), 중국 10.6(△1.7), 미국 10.1(△3.2), 중동 2.4(19.0↑), 신북방 2.8(10.6↑)

○ **(품목별)** **신선농산물**(12.5억 불, 0.0%↑)은 전반적으로 **전년 수준 유지**, 라면·음료·쌀가공식품 등 **가공식품**(61.0, 7.0↑) 중심으로 **수출 견인**

□ **고물가·고환율, 현지 소비 위축** 등 어려운 여건에도, **한류 확산**에 따른 **K-푸드* 인기** 및 **현장애로 해소** 노력** 등에 힘입어 **성장세 지속**

* 대표 K-푸드 품목인 쌀가공식품(떡볶이, 즉석밥 등), 고추장, 음료, 라면 등

** 글로벌 물류난 대응 전용 선박·항공 운영, 러-우 사태 대응 대체시장 개척 등

Ⅱ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**(기회 요인)** K-팝·드라마 등 **한류 콘텐츠** 인기와 코로나 이후 **건강 중시** 트렌드로 **K-푸드 수요*는 지속**될 것으로 전망

*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도: 5년 연속 '한식' 1위('22년 해외한류 실태조사)

○ 최근 **아세안·유럽** 지역 수출 성장세가 높고, 중국 중심으로 **온라인 식품 시장***도 꾸준히 성장하는 등 **시장 다변화** 추세

* 전세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(십억 달러): ('21) 330 → ('23e) 421 → ('25e) 523(유로모니터)

□ **(리스크 요인)** 인플레이션 심화, 환율 큰 폭 상승에 따른 **글로벌 경제성장 둔화*, 소비 위축** 등으로 수출여건 악화 우려

* IMF 경제성장률 전망(%) : (세계) ('22)3.2%, ('23)2.7 / (미국) ('22)1.6%, ('23)1.0%

○ 고물가로 인한 **원자재 가격** 등 상승과 더불어, **국제운임* 상승**이 계속될 경우 **물류비** 증가에 따른 **수출업체 부담**** 가중 예상

* 해상(LA): ('20.1) $1,600/FEU → ('22.9) 3,500 / 항공(홍콩): ('20.12) 1,600/kg → ('22.10) 2,800

** 농식품 특성 상 소량 출하되고 냉장·냉동 유통이 필요하여 물류단계 비용 소요↑

Ⅲ. 수출 확대 방안

<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**(목표)** 총수출(억불) : ('21) 85.6(실적) → ('22) 90(목표) → ('23) 100(목표)
◇ **(방향)** 물류 등 **현장애로를 적시 해소**하고 한류 등 **기회요인은 적극 활용**하여 수출 **지속가능성 제고 ⇒ '23년 역대 최고 수출액** 경신

1 신선 농식품 물류지원 확대 및 통관 애로 해소

○ **(물류 지원)**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물류 지원 강화

- 신선도 등 품질 제고를 위해 성장세가 높은 **유럽·중동을** 중심으로 **공동물류센터*** 이용 확대, **아세안**에서는 **콜드체인 운송**** 지원 강화

* ('22 현재) 17개국 84개소 → ('23) 21개국 88개소(네덜란드, 쿠웨이트 등 4개국 4개소↑)
** ('22) 중국, 베트남, 태국(시범운영) → ('23) 중국, 베트남, 태국 + 싱가포르·말련(시범)

○ **(검역·통관 지원)** **수입식품 성분 검사** 및 **안전성 규제** 등 해외 **비관세 장벽 강화**에 대응하여 **검사비 지원** 확대 등 지원 강화

- **중국 코로나 방역정책**에 따른 **수입식품 검사 강화**('22.4월)에 대응, 대 중국 수출 농식품에 대한 **코로나 핵산검사** 및 **소독비용** 지원 강화('23)

- **팽이버섯 리스테리아균** 지속 검출에 따른 美 **FDA**의 추가 **수입경보 발령**('22.7월)에 대응, **검사법 개선, 농가 교육, 안전성 검사비** 등 지원('22.11월~)

2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**(딸기·포도)** **수출유망 신품종**을 육성하고, **품질 고급화** 및 **수출기간 연장** 등을 통해 **동남아·중화권 프리미엄 시장** 진출 확대

* (딸기) 신품종(하이베리 등) 표준재배법 개발, 수정벌(착과율↑), 유황훈증기(병충해↓) 지원 등
** (포도) 샤인머스캣(수출비중 84%) 당도·중량 등 관리 강화 및 장기저장 기술·시설 보급, 홍주씨들리스 등 국산 신품종 육성 및 마켓테스트('22.10월~'23.2월, 약 1톤, 홍콩·베트남)

○ **(김치·장류)** **김치**를 활용한 **다양한 가공품**(김치양념·소스 등) 개발, **기능성 제품화** 및 **콜드체인**(아세안) 지원 등을 통해 **프리미엄 상품화** 추진

* 김치 맛·품질 향상을 위해 '23년 종균 보급예정량 7톤 중 5톤을 수출용으로 보급 예정

- **장류**의 경우 **고추장** 및 **장류 활용 소스** 중심으로 **아세안·미국** 공략, 특히 **세계문화유산 등재**('24년 예상)를 위해 **전문가 기고, 컨퍼런스** 등 추진

○ **(인삼류) 해외 기능성식품 시장** 진출 지속 추진(일본 소비자청에 '면역력 증진' 기능성 등록 추진('23~) 등), **아세안·중동** 등 **신규 유망시장** 진출 확대*

* (아세안) 한류와 연계하여 젊은층 대상 간편섭취 제품(홍삼제품) 홍보, (중동) 의료 관계자 대상 효능 홍보, (유럽)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규정 정보조사 및 컨설팅 지원 등

○ **(쌀·쌀가공식품)** 가뭄으로 **쌀 생산이 감소**한 **미국**과 미국산 쌀 주 소비국인 **캐나다,** 한시적 관세철폐로 **가격경쟁력**을 확보한 **몽골** 등 대상 **마케팅 강화**

* 미국 내 한식당 연계 쌀 활용 메뉴 판매('23~), 유통매장 판촉(미국·캐나다·몽골 등, ~'23.1월) 등

※ **<개척사례>** 수출상담, 바이어초청 등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 즉석밥 제조업체에 '22.11~'23.10월중 유기농쌀 500톤('21년 미국 수출량의 97% 수준) 수출계약(땅끝황토영농법인, '22.10월)

- **쌀가공식품**은 해외수요가 높은 **즉석밥, 떡류**(떡볶이용 등) 중심으로 **글루텐프리·할랄** 등 **해외인증** 취득 지원, **한류 활용 마케팅** 집중 추진

* 글루텐프리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, 한류콘텐츠 활용 떡볶이 등 간편조리법 홍보 등

○ **(푸드테크 제품)** 상품개발부터 해외 판매까지 **수출단계별 지원체계*** 구축, **HMR·대체식품** 등 **품목 특성**에 맞는 **유통망 개척** 및 **마케팅 지원****('23)

* 1단계(R&D, 상품개발, 해외인증, 현지화 등) → 2단계(거래선 발굴, 마켓테스트 등) → 3단계(주력시장 마케팅) → 4단계(시장 다변화)

** 푸드테크 상품 판촉전, 품목 특화 유통망 개척(대체식품-비건식당, 고령친화식품-병원 등) 및 전문분야 박람회 참가, 전문잡지 등 홍보

3 한류 · 온라인 등 글로벌 트렌드 활용 마케팅 강화

○ **(한류 활용) K-팝 콘서트** 등 **대규모 한류행사** 연계 K-푸드 홍보, 해외 주요도시에서 **'K-Food 페어***'(B2B·B2C 종합행사) 개최('23~)

* 베트남 하노이('23.4월), 인니 자카르타, 일본 도쿄, 프랑스 파리(6월), 중국·미국(3분기) 등

- **관계부처**(문체부 등)와 **협업**하여 **K-드라마** 등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**주요 수출품목 광고**(PPL) 추진, 한류 활용 분야(웹툰, 팬덤 등) 확대('23~)

○ **(온라인)** 해외 **대형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 개설 확대***, 기 개설한 곳은 입점 중소기업 확대, 판매실적 증대 등 **운영 내실화**

* 누적 개소수: ('22) 중국(티몰글로벌, 춘보), 아세안(쇼피, 라자다) 등 11 → ('23p) 15

- **현재 운영중**인 **한국식품관**(중국 티몰, 아세안 라자다 등) 내 **'지자체 우수 식품관'**을 개설('23, 5개소)하여 **지역특산물**의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

- **중국 티몰**(T-mall)에 개설한 한국식품관의 경우, **'aT칭다오물류센터'**를 물류기지로 활용하여 **풀필먼트 서비스** 지원

* aT 칭다오물류센터에 농식품을 보관하고, 온라인 주문에 따라 선별·포장·출고하여 고객에게 배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괄 지원(주문 후 24시간 이내 출고, 대도시 등 2~3일 내 배송 완료)

4 신시장 개척 및 신규 거래선 발굴

○ **(시장 다변화)** 주요국(일·중·미)에 집중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**성장 가능성, 진출여건** 등을 고려하여 **다변화 전략국**(20개국 선정) 집중 개척

- 전략국에 **시장개척요원을 파견**하고 **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** 등을 집중지원하여 **역량있는 수출기업**들의 **현지 개척활동** 기반 마련

* 전략국 수출선도기업('22년 54개사 지원) 수출액은 ('20) 113백만불 → ('21) 139(23.1%↑)로 증가

○ **(바이어 연결)**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해외 **국제식품박람회**를 추가 발굴*하여 **참가 박람회 수** 확대('22: 19개 → '23: 24)

* Sial Canada(5월), 인도 ANUFOOD(9월), 독일 ANUGA(10월), 베트남 FHH(11월) 등

- **대형유통채널 입점**을 위한 **바이어 발굴** 확대, 바이어를 **국내초청**하는 **대규모 수출상담회**(Buy Korean Food) 개최 등 판로개척 강화

Ⅳ. 협조 요청사항

○ **국적선사 협업**을 통한 **농식품 전용선복 확대** 운영, **국내·외 콜드체인 운송**을 위한 **선박·항공 관련 물류 인프라*** 활용 협조

* 예: 공공·민간부문에서 보유한 해외 물류센터 활용 수출 농식품 보관·유통 지원 등

4 수산식품 (해양수산부)

Ⅰ. '22년 수출성과 및 평가

□ **(수출실적) 글로벌 경기 침체** 등 수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, 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**20.3% 증가**한 **26.8억불 기록**

* 수산물 수출(억불) : ('19) 25.1 →('20) 23.1 → ('21) 28.3 / ('21.10월) 22.3 → ('22.10월) 26.8

○ **(수출성과)**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, 비대면 판로 확보 및 기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통해 **역대 최고 수출실적** 달성 전망

○ **(실적평가)** 주요국 및 주요품목 수출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, 여전히 **상위 수출국**과 **수출품목**에 대한 **집중도**가 높게 나타남

* 상위 3개 국가 수출 비중 : ('17) 61.2% → ('19) 61.9% → ('20) 61.4% → ('22.10) 62.5%
** 상위 3개 품목 수출 비중 : ('17) 49.5% → ('19) 46.9% → ('20) 49.4% → ('22.10) 49.3%

Ⅱ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**(수출여건)**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수산물 수출은 **코로나19 완화** 등 일상회복 영향에도 불구하고, **저성장·고물가** 기조에 따라 위축 우려

○ **(기회요인) 코로나19 완화**에 따른 물류 및 관광 재개 등 일상생활 회복은 수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

○ **(위협요인) 저성장·고물가** 기조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는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

■ (**저성장**) 유럽, 미국 등을 중심으로 **저성장***이 전망되며, 경기침체 가능성 대두
*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('22→'23) : (세계) 3.2% → 2.7% (미국) 2.4% → 1.1% (유럽) 3.1% → 0.5%

■ (**고물가**)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며, 더불어, 선호 품목의 변동 가능성 (고가격 수산물 → 저가격 수산물(ex> 참치 통조림)을 높일 것으로 예상
* 미국 CPI(U.S. Bureau of Labor Statistics) : ('21.01) 1.4% → ('22.09) 8.2%

□ **(수출전망)**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**경기 둔화**로 인한 외식·소비 수요 위축 등에 따라 '23년에는 수출 **증가폭**이 **다소 축소**될 것으로 전망

Ⅲ. 수출 확대 방안

< 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목표) 총수출(단위: 억불) : ('21) 28.3 → ('22) 30 → ('23) 32*

* '15~'21년 수산물 수출액 연평균 성장률 6.61% 적용

◇ (방향)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생산으로 수출 규모 및 대상국 확대

* 수출지원 예산(보조·융자) : ('22) 173,381백만원 → ('23안) 172,463(△913)

1 수출기업 무역애로 해소 및 수출통합브랜드 운영

○ **(수출기업 육성) 내수기업**을 **수출기업**으로 **육성**하고, 기업 규모·역량에 따른 **성장 자금 지원**(바우처*)으로 글로벌 **경쟁력 강화** 및 **진출 확대**

* 수출 준비~해외 진출~경쟁력 강화 등 지원 항목을 바우처 메뉴로 제공 → 기업 선택 사용

- 수혜기업 대상 바이어 발굴, 수출전략 수립, 해외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유망 내수기업 발굴하여 수출기업으로 외연 확장

* ('22) 초보(10개사), 성장(15개사), 고도화(8개사) → ('23) 초보(10), 성장(17), 고도화(10)

○ **(선도조직) 수출 품목의 경쟁력 일원화**를 위해 품목별 조직화*를 유도하고 성장·규모화 지원으로 **1억불 이상의 수출 품목 확대 견인**

* (조직화 유도) 자율협의체 / (조직 육성) 법인화 → 2개 이상 법인조직의 연합·통합 조직 결성

- 조직 성장 방안 제시를 위한 역량 진단 실시, 중간 평가를 통해 조직 맞춤형 사업 추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직 육성 촉진

* ('22) 생산(2개 조직)/스타트업(2)/고도화(4) → ('23) 생산(1개 조직)/스타트업(2)/고도화(5)

○ **(국제인증 취득지원) 시장 다변화, 경쟁력 확보**를 위해 **지원** 대상 **인증**을 **확대**(39→41종)하고 **인증기관 협력** 및 **컨설팅 강화**로 인증 취득율 제고

- 윤리 경영 등 가치 소비 확산, 중앙아시아 지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식품 규격 인증 신규 지원* 및 인증 취득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확대

* (2종 추가) △윤리경영 1종(ESG 인증), △할랄인증 1종(중앙아시아 AHIK 인증)

○ (K-FISH) **K-FISH 식품안전성 확보** 및 **브랜드 가치 제고**를 위해 유통매장 등 연계 **마케팅**을 추진하고 **수출 활성화**를 위한 **지원 기반 확충**

- 식품안전 이슈(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) 대비 수거검사 추진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확대(10개국→ 15개국)

○ (**현지화 지원**) 현지 무역애로 신속 대응을 위한 해외전문가 POOL 확충* 및 무역지원센터 연계 **수출 인큐베이팅·지사화** 지원** 확대

* ('22) 해외 30개 기관(법률 자문 등 지원, 10월 현재) → ('23) 40개(+10개 기관)
** ('22) 인큐베이팅·지사화 35개사 → ('23) 인큐베이팅·지사화 40개사(+5개사)

2 수출 물류인프라 구축

○ (**해외**) K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**해외 물류기지**를 **확충**하고, 소비 저변 확대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 **해안-내륙 연계 물류지원** 추진

* 내륙 운송비지원(수입항구-지정창고), 활수산물 주요 수출국에 공동 활용 수조 확보 지원
** (`22) 13개국 53개소 → (`23) 16개국 58개소, 아세안·중국내륙 등 물류센터 인프라 확대

○ (**국내**) **활수산물 수출 전** 항만.공항 인근 지역에 **임시보관 수조 사용료 지원**으로 폐사 예방, 상품 가치 하락 등 **수출 경쟁력 확보**

* 지원 방식변경('22 : 수조주에 지원금 지급 → '23 : 지원업체 지급)으로 수출업체 편의 제고

3 수출시장 다변화

○ (**맞춤형 시장조사**) 新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**수출기업**을 대상으로 **맞춤형 정보**를 **제공**하여 **시장 다변화 촉진** 및 **경쟁력 강화**

-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을 통한 정보 조사와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병행으로 수출기업 만족도 제고

○ (**해외 HORECA 진출 지원**) **K씨푸드** 해외 **B2B 외식업계** 진출 지원을 통해 식자재 **대량 납품처 확보** 및 **新유통시장 개척**

* (`22년) 미국, 중국, 일본 등 5개국 7회 추진 → ('23) 베트남, 태국 등 아세안 시장 확대

4 한류연계 및 온라인 통합마케팅 강화

○ (**수산물통합마케팅**) 해외 **홍보.유통 인프라**를 **활용**한 **홍보.마케팅**을 통해 **K씨푸드 관심 확산** 및 구매 활성화로 **수출 확대 도모**

- 이커머스 플랫폼 내 K-씨푸드 홍보·판매 거점 운영(7개관*) 및 미디어 스튜디오 확대 운영을 통해 수출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** 등 지원

* 미국·호주 아마존, 미국 H프레시, 중국 타오바오, 태국·싱가포르·말련 쇼피

** 미디어 스튜디오 콘텐츠 제작 확대('22 : 200 → '23 : 400)

○ (**방한관광객 홍보**) **訪韓외국인**을 **대상**으로 **K씨푸드 판매** 및 **우수성 홍보**를 위해 면세점, 크루즈 터미널 등과 연계한 **홍보.판촉 추진**

*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축소(HDC신라면세점) 및 휴관 시설(부산 국제 페리여객터미널, 부산 국제 크루즈 여객터미널) 정상화 추진

○ (**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**) **한류 콘텐츠**를 **활용한 수산식품** 등 **다양한 연관 산업 동반 성장**을 위해 관계부처 **협업 사업 추진**

- 가공·HMR 제품 중심으로 간접광고 수혜품목 다변화 및 수혜기업 확대(10개사→15개사) 및 K-브랜드 해외홍보관 연중 운영('22 : 2개월) 추진

* 합동박람회 및 해외 홍보관 운영계획 수립·추진(상반기)

Ⅳ. 협조 요청사항

1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

○ (**문체부**) 드라마, K-pop 스타 연계 농수산식품 홍보 강화

5 문화·콘텐츠 (문화체육관광부)

Ⅰ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**콘텐츠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***해 왔으며 전 세계적인 **사회적 거리두기 완화** 기조 고려시, **성장 추세 유지 기대**

* 콘텐츠산업 수출액 : ('18년)96.2억 달러 → ('19년)102.5억 달러 → ('20년)119.2억 달러

○ 특히, 온라인게임·웹툰·동영상·음원서비스 등 전 세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**비대면 콘텐츠 시장 확대** 예상

* 13개국 대상 조사 결과, 코로나19 계기 가정 내 온라인 동영상 49%↑, TV 39%↑, 음악 스트리밍 35%↑, 게임 32%↑

Ⅱ. 수출 확대 방안

<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목표) 총수출(단위: 억불) : ('21) 135.8 → ('22) 150.2 → ('23) 166.1

◇ (방향) 한류 콘텐츠의 대면·비대면 투트랙 해외 수출 지원 강화

○ 해외거점 확충·정보제공 등 콘텐츠 기업 수출 지원체계 고도화

○ 대면 수출시장 개척 및 비대면 해외 진출 지원 확대

1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

○ **(해외거점 확충)**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**해외 지사 역할을 대행**하는 **해외거점 확대 구축*** 및 **현지 맞춤형 네트워킹** 지원('23년 102억원)

* ('22년) 9개국 10개소 → ('23년) 13개국 15개소 확충 예정

** (해외거점 주요 기능) 현지 시장 동향 및 정보제공, 컨설팅·마케팅 지원, 사무공간 등 인프라 지원, 네트워크 구축, 현지 유관기관 교류·협력 등

○ **(맞춤형 정보제공)** 한류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('23년 15억원)

- 콘텐츠수출플랫폼 **웰콘**(WelCon)**과 연계**하여 **국내외 한류 콘텐츠 정보의 통합적 조사·축적·공유·활용**을 위한 '(가칭)**한류 데이터센터**' **구축**

* 일반·보편적인 범용 정보가 아니라 개별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

○ **(전문인력 양성)** 콘텐츠 **수출 전문인력*** 및 **번역인력** 양성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비즈니스 **경쟁력 강화**('23년, 34억원)

* 콘텐츠 산업계 현업·신규 인력 대상 ▲무역 및 마케팅, ▲콘텐츠 특화 수출, ▲현장 연계 인턴십 및 해외 연수, ▲실무 중심의 외국어 교육 등 진행

** 영어·스페인어 등 6개 언어, 언어별 10명 내외 번역실무 고급과정 운영, 수료생 대상 인턴십 지원 및 신진 번역가 발굴을 위한 번역 콘테스트 개최

○ **(콘텐츠 IP 보호)** 콘텐츠 관련 **권리 획득과 보호**를 위해 **기술·디자인·상표·저작권** 등 **특허 출원 및 등록, 저작권 등록 지원**('23년, 18억원)

2 비대면 수출지원

○ **(국내기업 육성)** 콘진원 **지역 거점기관과 연계**하여 **수출 준비기업 육성*** 및 웰콘 **'마켓플레이스'**(온라인 전시관)** **국내기업 입점 확대**('23년 15억원)

* 콘텐츠 및 트레일러 제작, 번역·더빙 재제작 지원 등

** 콘텐츠 스토어(기업 미니 홈페이지), 콘텐츠 전시관, 행사 홍보관, 구매지원, 온라인 회의 등 지원, 현재 국내 875개 기업 입점

○ **(바이어 유치 확대) 비즈매칭 에이전트 활용*** 및 국내 주재 **외국 대사관·투자청과의 협력****을 통해 **핵심 바이어 발굴** 및 **웰콘 내 유치**('23년 15억원)

* 해외 현지 전문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콘텐츠 장르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

** 상시·정례(분기별) 회의 및 국가별 웨비나를 개최하여 국가 간 온라인 상시 비즈매칭 활성화

3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

○ **(마케팅 지원)** 국가별 맞춤화 전략을 바탕으로 **B2B 중심의 K-콘텐츠 엑스포*** 개최 및 콘텐츠 **한국공동관 참가**를 통해 **해외진출 기회 확대**('23년 55억원)

* 1:1 수출상담회, 세미나, 콘텐츠 피칭, 네트워킹 행사 등

○ **(한류 경험 확산)** 국제행사 및 수교* 기념 등 **계기성 행사와 연계한 B2C 특화 프로그램**** **개최**를 통해 **한류 콘텐츠 홍보 강화**('23년 25억원)

* '23년 수교 국가: 인도/인도네시아/핀란드 등(수교 50주년), 스위스/캐나다(수교 60주년), 태국(수교 65주년), 오스트리아(수교 130주년) 등

** K-pop 공연, 한류 콘텐츠 전시, 현지 한류팬 참여 이벤트 등

4 한류 콘텐츠 연관산업 동반수출 지원

○ **(부처합동 K-박람회)** 한류 **콘텐츠·소비재의 동반 해외진출**을 지원하는 **관계부처 합동* 해외 현지 한류 종합박람회** 개최('23년, 20억원)

* 문체부(총괄), 산업부, 농식품부, 중기부, 해수부('23년 복지부 추가 참가 예정)

○ **(협업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) 다부처* 협업**을 통한 **한류 외연 확장**

* 문체부(주관)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해수부·중기부 참여

- **콘텐츠 IP를 활용**하여 게임·웹툰·생활소비재·한복·전통문화 등 **협업상품 기획·개발, 홍보 및 유통 지원**('23년, 60억원)
- 한류 플랫폼(드라마 제작사·방송사·연예기획사 등) 및 연관산업 연계하여 **간접광고**(드라마·예능 등) 등 **한류 활용 홍보마케팅 지원**('23년, 45억원)

Ⅲ. 협조 요청사항

1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

○ (산업부, 농식품부 등) 한류 콘텐츠 연관산업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협력 신규 사업 추가 발굴(한류협력위원회 중심)

6 해외건설 (국토교통부)

Ⅰ. '22년 수출성과 및 평가

□ 수주현황

○ 1월부터 현재까지 **총 486건, 총 260.7억불 수주**(전년동기 대비 +23.4%)

구분	'17	'18	'19	'20	'21	최근 5년 평균	'22
1년간(억불)	290 (624건)	321 (661건)	223 (667건)	351 (564건)	306 (499건)	298.2 (603건)	- (-)
1.1-11.18(억불)	222 (490건)	223 (464건)	172 (490건)	185 (416건)	181 (355건)	196.6 (443건)	**260.7 (486건)**

※ ('22년 주요실적) 미국 오스틴공장(19억불, 최고액), 말레이시아 가스프로젝트(6.8억불, FEED연계), 노르웨이 고속도로 건설(3.9억불, PPP), 이집트 원전(약 3조원), 사우디 네옴터널(12억불)

○ (지역별) **아시아 지역이 강세**(42%, 인니 라인프로젝트, 필리핀 남부철도 등)

- **중동지역**(29%)도 **사우디 네옴 터널**(12억불) 등 주요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**기반사업을 견실히 수주 중**

* (지역별) 아시아 42.1%(109.6억불), 중동 28.9%(75.3억불), 북미·태평양 11.3%(29.6억불)
(국가별) 인니 13.2%(34.3억불), 사우디 13.1%(34.2억불), 이집트 10.7%(27.8억불)

○ (공종별) **산업설비**(42%) 우세, **건축**(25%)·**토목**(21%)은 **균형 수주** 경향

- 특히, 13년만의 **원전 수주**('22.8, 이집트, 약 20억불), 우리기업의 **FEED**(플랜트 기본설계) 수행으로 **본공사 수주 달성**(말련, '22.7, 6.8억불) 등 특징

Ⅱ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고유가, 인플레이션 완화, 글로벌 경기·공급망 회복 등이 선행 시 **'23년 해외건설시장 규모 및 발주물량 동반 증가**가 **예상**

○ 다만, 최근 **우리기업의 입찰참여 감소경향 고려 시 '23년 300억불 내외로 수주 전망되**며 폴란드·사우디 원전 수주 시 상승 가능

* 입찰참여 규모(억불): 903('18), 798('19), 668('20), 511('21), 248('22.11)

< **발생 가능한 수주 리스크** >

▪ **재원 확보 리스크**
- 경기 침체에 따른 현지 발주처의 생산설비 투자 규모 축소
- 국내 제조사의 해외 공장 투자 규모 축소/보류
- 인플레이션 압력에 의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지연/보류
- 개발도상국의 외환보유고 감소에 의한 사업발주 취소
- 국내 중소 건설사 유동성 영향 등에 의한 보증발급 어려움 및 초기비용 부담

▪ **지정학적 리스크**(우크라-러시아 전쟁, 이라크/리비아 정치적 불확실성 등)

Ⅲ. 수출 확대 방안

<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목표) 해외건설 수주 : ('21) 306억불 → ('22) 300억불 → ('24) 350억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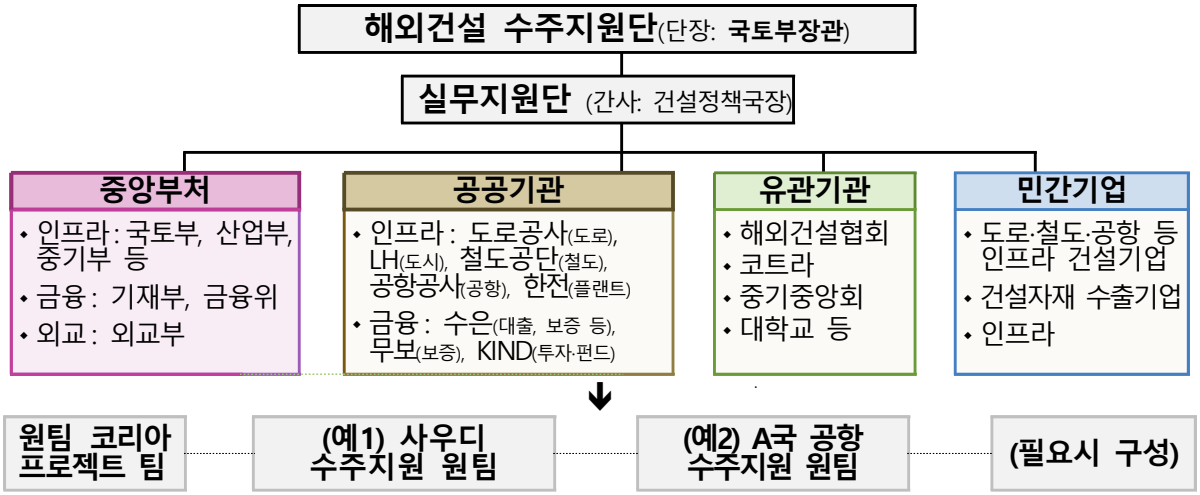
◇ (방향) 민·관 합동 추진체계 마련 및 공공 지원 강화

- ㅇ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·출범
- ㅇ KIND 기능강화 및 진출기업에 정보제공 확대 추진

1 **(해외건설 수주지원단) 관계부처·공기업·민간**이 참여하는 **"해외건설 수주지원단"**을 구성하여, **주요사업별 진출·공략방안** 수립

ㅇ **국토부장관**을 **단장**으로 연내 구성, **주요 사업**별로 **최적**의 **"원팀 코리아"**를 구성하여 **ICT·문화·에너지** 등 **패키지 진출전략** 수립('22.末)

<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구성(안) >



2 **(KIND 기능강화) 정부 간 사업발굴** 등 **G2G 기능 강화,** 자본금 확대 통해 **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 강화**

ㅇ **인프라 협력센터*** **추가 개설**('23)을 통해 **주요국 발주동향** 및 **사업 추진 여건**을 분석·제공하고, **신규사업 기획·발굴 기반 마련**

* 현재 케냐, 인니, 베트남, 방글라데시에 4개소 인프라 협력센터 기 운영 중

ㅇ **KIND 자본금 상향**을 위한 **제도기반 마련**(해촉법, 10.25 발의), **자본금 확충**을 통해 **투자개발형사업 참여 확대 추진**('23~)

3 (**정보제공 강화**) **해외건설 관련정보 제공 창구**를 **일원화**하고, **주요국 법률·정책 안내** 및 **법률·세무 컨설팅**도 지속 추진

○ 다양한 기관의 해외발주정보 등을 **일괄 제공**하는 **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**(해건협)을 **연내 시범운영, 대국민 서비스 제공**('23. 上)

○ **주요국 법률·정책**에 대한 **한국어 번역 서비스**와 **법률·세무 컨설팅** 확대('23)

Ⅳ. 협조 요청사항

1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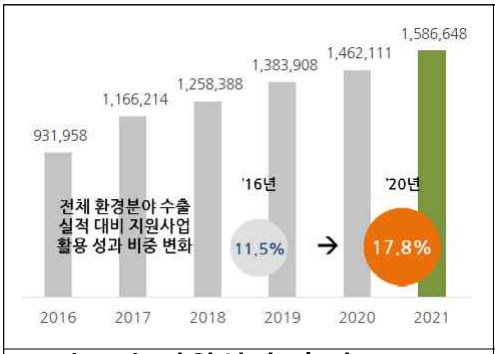
○ (**산업부, 과기부 등**) **해외시장 공동 개척·진출** 및 **패키지 사업** 진출을 위해 **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**

7 환경플랜트·제품 (환경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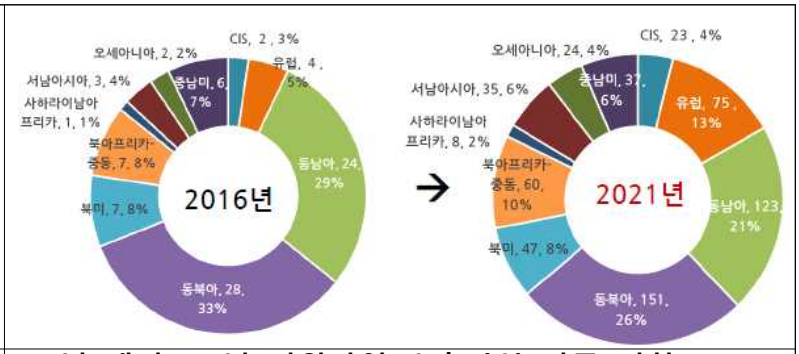
Ⅰ. '22년 수출성과 및 평가

□ **'22년 지원사업 연계 9,583억원 규모**('22.9월 기준) 환경 플랜트·소부장 수주·수출

○ '16년 동남·동북아 중심(62%) 수출 지원실적 대비 유럽(5%→'21년13%)과 북아프리카·중동(13%→'21년23%) 비중 크게 증가하여 **수출국 다변화 확인**



연도별 지원성과 추이(백만원)



`16년 대비 `21년 지원사업 수출권역 비중 변화(건수, %)

□ 그러나 **전체 환경산업 수출은 최근 정체상태***이며, 중동·동남아·중국 권역 수출이 여전히 전체 수출성과의 60%를 차지하고 있음

* 환경산업통계조사 기준 ('18년) 82,005억원→('19년) 80,365억원(2%⇩)→('20년) 82,007억원(2%⇧)

Ⅱ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수출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으나, **기후변화 대응·ESG 등 시장 확대** 움직임

○ 글로벌 공급망 불안, 중국 경제성장 둔화, 긴축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, 신규 입찰 및 투자 감소 등으로 **수출 불확실성 확대**

- 한국 경제성장률* 및 수출증가율** 지속적 하락 전망(현대경제연구원, '22. 9월)

* '21년 4.1%→ '22년 2.5%→'23년 2.2% ** '21년 25.7%→ '22년 11.3%→'23년 4.0%

○ 글로벌 기후·환경 ODA 확대 추세에 따라, 한국도 **그린ODA 비중 확대**('20년 19.6%→'25년 28.1%)되어 국내기업 해외 환경시장 진출 계기 마련

○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EGS 이행 확대 등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환경산업 해외진출기회 모색 필요

Ⅲ. 수출 확대 방안

< 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목표) 지원사업 연계 수출액(억원) : ('21) 15,864 → ('22) 15,864 → ('23) 16,000(미정)

◇ (방향) 프로젝트별 밀착 관리 강화 및 상생형 지원체계 마련

- ㅇ 프로젝트 ODA 추진 및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위한 진출 촉진
- ㅇ 민간주도 수출 확대 및 신시장 적응력 높여 글로벌 기업경쟁력 향상

1 [지원체계] 해외진출 지원기관 · 재원기관 · 기업 간 교류 활성화

ㅇ 공공기관, 금융기관, 환경기업 등으로 구성된 **"해외진출 기업협의회"** 본격 운영하여 수요기반 수출 지원 및 기관-기업/기업-기업간 교류 지원

ㅇ **글로벌 전문무역상사와 기술원 해외사무소** 등이 旣 보유한 시장정보 수집, 바이어 발굴 등 **네트워크**를 중소 환경기업과 **공유 네트워크로 확장**

ㅇ 프로젝트 발굴 지원*으로 도출된 사업 중 **우수·유망사업 선정**하여 재원 연계, 컨소시엄 구성, 기술현지화, G2G 협력 등 **밀착지원 및 모니터링**

2 [국제협력] G2G 협력 내실화하여 기업 활용도 제고

ㅇ 환경기업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및 개도국 녹색회복·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**그린 ODA 사업 추진**('22년 4,478억원→'23년 12,357억원 예정)

* 가나 아크라 스마크 상수도 구축(총 3년 128억원 규모, '23년 8.6억원 확정), 우즈벡 지속가능 폐기물처리시설 구축(총 4년 85억원 규모, '23년 5억원 확정)

ㅇ **환경협력 MOU** 旣 체결국 대상 **산업협력 이행방안 구체화 및 이행점검**

3 [新 시장] 국외감축 · ESG 시장 등 해외진출 방안 모색

ㅇ 旣 지원사업 및 기업 수요를 검토, **'국외감축 컨셉노트'**로 개발·관리

ㅇ 기술원 해외사무소*에 **'탄소중립 지원센터' 개설**하여 신규사업 발굴

* 중국, 알제리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콜롬비아 5개국 소재

ㅇ 국외감축사업 추진기업 대상 **국외감축 사업화 컨설팅 지원 및 소규모 현지화 시범사업 지원**하여 실증 및 최종수주 지원하고 기업 역량 제고

Ⅳ. 협조 요청사항

1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

○ **(산업부 등)** 해외사업 추진 협력 및 현지 기관 협조 확대 등

2 수출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

○ **(코트라)** 현지진출 우리환경기업의 정보공유, 해외무역관 전문가를 해당국 지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협조

○ **(기타)** 국내 재원 담당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**유·무상 ODA 패키지 사업 활성화**하여 우리기업 **레퍼런스 확보** 및 수주 가능성 제고

* (例) KEITI(무상, 85억원)-수출입은행(유상, 1,000억원)간 우즈벡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공동 추진 중

8 식의약품 (식품의약품안전처)

Ⅰ. 최근 수출성과 및 평가

□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 **높은 생산·기술경쟁력***에 기반하여 바이오·디지털헬스 산업 **수출규모 큰 폭으로 증가****('21)

* 세계 3번째 **자체개발 코로나19 치료제**('21.5)**·백신**('22.6) **동시보유**, 식약처 주도 개발 **AI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채택, 승인**('22.5) 등

** **식품** **18.5%**($ 79.79억 → $ 94.56억) / **의약품** **17.6%**($ 84.44억 → $ 99.28억)
의료기기 **30.0%**($ 66.37억 → $ 86.29억) / **화장품** **21.3%**($ 75.72억 → $ 91.84억)

○ 체외진단기기*, 바이오의약품** 등 **신산업·혁신분야** 중심으로 수출

* 의료기기 수출규모 중 **53.9%** 차지 // ** 의약품 수출규모 중 **16.0% 차지**

Ⅱ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팬데믹 등 **글로벌 보건위기**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급망 확충 위한 **제조역량 강화*** 및 공동대응 위한 **블록화**** 형성, 수출여건 악화

* (미) 바이오제품 **생산기반 구축, 공급망 강화** 등 바이오기술·제조 이니셔티브 발표('22.9)

** (의약품) 영어권, 중규모 국가중심 **공동심사 컨소시엄**(ACCESS, 영·캐 등 5개국)
(의료기기) 국제협의체 초기 회원국 **국제공동심사 프로그램**(MDSAP, 미·일 등 5개국)

□ 그간 **식의약 분야**는 **총 수출규모** 및 **글로벌 시장성장률 상회**하여 **수출규모 성장***, 이를 **지속**하기 위한 **식의약 수출지원 적극 추진**

* 연평균 **식품** **7.7%** **의약품** **28.3%** **의료기기** **28.5%** 수출규모 성장('17~'21, 의약품 '16~'20)

↔ 동 기간 **총수출규모** 성장 연평균 **2.95%**('17~'21)
품목별 글로벌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: **식품** **2.1%** **의약품** **3.4%** **의료기기** **5.9%**

Ⅲ. 수출 확대 방안

< 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목표) 총수출(억불) : ('21) **374** → ('23) **404**(목표)
* 최근 4년 글로벌 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 시장성장률 3.73%(가중평균) → **연평균 4% 적용**

◇ (방향) **혁신제품 개발·글로벌 진출, 규제장벽 해소** 등 종합 수출지원

○ ① 혁신제품 **신속 제품화,** ② 신기술 적용제품 **규제체계 마련** ③ 규제협력·지원 통한 시장진출 원활화 ④ **G2G 정례협의** 운영, 수출애로 해소 ⑤ **수요연계 업계 지원**

1 【제품화】 바이오·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

○ 바이오·디지털헬스 혁신 의약품·의료기기*의 **개발단계**부터 **사전상담·신속심사**(GIFT**) 등 **전주기 제품화 지원, 신속 시장진입 촉진**

* 중대질환 치료·감염병 예방/치료 의약품, 혁신 의료기기, 융복합 혁신 의료제품 등 ('22년 사전상담 **118건**, 신속심사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등 **11건** / 심사기간 25% 단축효과)

** **GIFT**(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) ▲**준비된 자료**부터 先 심사 ▲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**자료 시판 후 제출** ▲심사자-개발사 **수시소통**(예: 보완설명회) 등

○ 범부처 식의약 R&D 사업(과기부·복지부 등) 대상 **개발단계**부터 **기술규제 정합성*** 검토 등 **R&D 코디 서비스, 투자 효율성 제고**

* 제품분류, 안전성·유효성 평가 등 **규제요인 사전컨설팅, 혁신제품 평가기술 개발** 등 ('22년: 과기부, 복지부, 질병청 등 대상 사업컨설팅 17건 검토)

- **첨단바이오*·혁신의료기기**** 등 **주요품목** 대상 제도 중점운영

* 세포치료제, 유전자치료제,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 // ** ICT, BT 등 첨단기술 적용 등을 통한 안전성·유효성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(식약처 지정)

2 【신산업 활성화】 신기술 적용제품 규제체계 선제 마련, 상용화 촉진

○ 세포배양 등 **신기술 적용식품 원료인정·안전성 평가체계** 등 **규제체계 선제마련, 제품 상용화 신속지원**하여 글로벌 시장선점 도모*

* **싱가포르 치킨너겟 제품** 1건 **승인**('20), **미국 실험실배양 닭고기 제품** 안전성 점검 완료('22) 등 세계 각국에서 **시제품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진행 중**

○ 신기술·융복합 의료기기 **맞춤형 신속 분류제도*** 및 혁신 바이오의약품(마이크로바이옴** 등) **기준 적용**, 신규제품 시장진출 촉진

* 개별품목 고시 전 **"한시품목" 분류제도 도입,** 이후 해당품목 **정식 품목신설 진행**

** 미생물(microbe)와 생태계(biome)의 합성어, 인체서식·공존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

3 【진출지원】 규제협력·정보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원활화

○ 의료제품 **GMP 실사 상호인정**, 외국 식의약 규제기관 **참조국***에 **한국 인정추진** 등 국내 제품의 **글로벌 시장진출 원활화**

* 외국 식의약 규제기관에서 의약품 허가 시 **허가절차 간소화 등** 신뢰할 수 있는 **국가**

- **한-싱 GMP 상호인정**(의약품)**·국제공동심사 프로그램**(MDSAP, 의료기기) 가입, **ASEAN·중남미** 등 제도 운영국 대상 **참조국 인정추진**

* **WHO 우수규제기관**(WHO-Listed Authorities) **평가 → 최초 등재 시**('23. 1분기 예상), **참조국 인정** 위한 적극적인 **대외홍보 추진**(문체부, 외교부 등 협업)

○ 국내 식의약 규정 **국제조화,** 글로벌 **규격·인허가 정보제공***으로 **국산제품 신뢰도 제고** 및 **글로벌 시장진출 조력**

* **(식품)** 글로벌식품법령·기준규격정보시스템 / **(화장품)**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**(의약품·바이오)** 의약품안전나라 / **(의료기기)** 의료기기정보포털 등

- **수입요건 완화**(서류 등) 위한 **약전 영문화*** **·협의체**** 가입 중점추진

* 에콰도르, 페루 등 남미지역 국가 규제기관에서 **약전 영문화 요청**

** **(약전토론그룹) 미국·EU·일본** 가입 / 다수의 국가는 **회원국 약전활용 수입요건 간소화**

4 【G2G 협력】 주요국 정례협의 활성화, 민간 수출애로 해소 뒷받침

○ 주요국 규제기관과 식의약 분야 **정례 협력채널**(국장급) **활성화*** 및 **정책 심포지엄** 운영으로 **제외국 제도이해** 및 **수출장벽 해소 지원**

* (현행) 한-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운영('04~) → **협력국가·분야** 확대 추진

- **조제분유, 라면, 의료기기, 화장품** 등 수출 애로사항* 해소 추진

* **(조제분유)** 배합비등록·현지실사(중) / **(라면)** 에틸렌옥사이드 규제(EU) / **(의료기기)** 신의료기기법 시행, 인증획득(EU) / **(화장품)** 사용원료 안전성자료 등록(중) 등

5 【업계소통】 글로벌 정책업무 유기적 연계 위한 소통체계 구축

○ **글로벌 진출 지원협의체*** 운영하여 **외국규제** 애로사항 해소·지원 방안 등 **글로벌 정책수요 적시 파악** 및 **신속 대응체계** 구축

- 정례협의-협의체 **연계운영**, 이슈 **사전해소** 및 **통상문제 발전차단**

* 식품 / 건강기능식품 / 의약품·바이오 / 의료기기 / 화장품 등 분야별 **협회·단체 및 업체**(참여희망 업체, 4~6개 업체)로 구성 → 1차 간담회 실시(7회, 9.7~23)

Ⅳ. 협조 요청사항

1 관계부처 협조 요청사항

○ **(문체부, 외교부)** WHO 우수규제기관 최초 등재사실 **효과적 홍보**위한 **해외문화홍보원, 해외공관** 등의 **적극적인 협조요청**

○ **(과기부, 복지부) 식의약 R&D 코디 서비스** 적극적인 활용 요청

2 수출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

○ **(코트라, 보건산업진흥원)** 해외진출 업계 대상 **식의약 규제협력 수요** 및 인허가 등 **규제관련 신뢰성 있는 현지정보 파악, 제공**

9 통관 (관세청)

Ⅰ. 수출 확대 방안

< 수출 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방향)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

- ㅇ 국가 핵심(첨단)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제도 규제 혁신
- ㅇ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
- ㅇ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 조성

1 보세제도 규제 혁신

※ **(참고)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(%, '21) : 반도체 96, 바이오 50, 디스플레이 88**

ㅇ **(보세공장)** 자율관리 보세공장*에 대해 **원칙적**으로 **모든 물품 반입 허용**(네거티브 방식 규제 도입), 신고를 생략하고 **R&D 센터로 물품 상시 반출입 허용 → 작업범위 확대 및 물류절차 효율화**('22.11)

* (요건) ①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, ②ERP(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) 관세청 열람 허용

ㅇ **(제도활용 제고)** 반도체·디스플레이 등 **주요 핵심산업 전후방 연관 기업**과 보세제도 활용 혜택이 큰 기업 대상 **특허 취득***(전환) 지원('23.4~)

* 특허 취득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,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혜택 안내 등

2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

ㅇ **(절차 간소화) 목록통관 허용 세관**을 현행 3개에서 **전국 34개**로 **확대**('22.12), **특송업체**는 **1개**의 **등록 부호**로 지역·수출입 관계없이 **통합 사용***

* 기존에는 A업체의 수입통관 세관이 3개(인천, 평택, 김포)인 경우 → 3개 특송업체 등록

ㅇ **(물류비 절감) 일본·베트남**에 해상 특송화물 **목록통관 제도**를 **도입*** 하고, **수출실적 검증**(관세청)을 통한 **물류비 지원**(지자체) **협업사업** 추진

* (예시) (우리나라·중국) 항공·해상화물 목록통관 VS (일본·베트남) 항공화물만 목록통관
(일본) 항공운임 10,500원/kg vs 해상운임 7,500원/kg (약 30% 비용 차이)

3 해외통관애로 해소

○ **(통관애로)** 품목분류 국제 분쟁 등 **해외통관애로 해소**를 위해 **범정부 종합지원팀*** 운영, **관세관 활용**** 및 관세당국과의 협력 강화

* (관세청) 세원심사과, 관세평가분류원, 중앙관세분석소 + (기재부) 산업관세과, FTA이행과
** 8개국(미국, 일본, 중국(홍콩 포함), EU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인도, 태국) 13명 관세관 활동중

○ **(FTA 활용)**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을 위해 **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* 전자교환 시스템**을 운영중이며, **지속 확대** 추진**

* 물품이 FTA 체결국에서 재배·사육·제조·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
** (現) 2개국(중국・인도네시아) → (改) 4개국(베트남・인도 추가) 확대 협의중('23)

○ **(AEO 협정)** 무역규모가 큰 국가 위주로 체결하던 AEO MRA*를 **통관장벽이 높은 알제리·사우디 등**과 **우선 체결****

* 상호인정협정 :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
** 알제리 AEO MRA 협의 착수('22末), 사우디 AEO MRA 체결('23末로 조율중)

10 지재권 (특허청)

Ⅰ. '23년 수출 여건 및 전망

□ **기술패권시대,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대외 수출 여건 악화**

○ 반도체·AI 등 **첨단기술**에 대한 **주도권 확보**를 위한 **미·중 무역 분쟁 확대**로 **우리 경제**의 **불확실성 확대**

○ **러·우크라 사태 장기화**, 미국 등 주요국의 **금리인상·통화긴축** 확산 및 **중국 경제**의 **성장 둔화**로 **세계 경제**의 **하방 압력 증대**

* 경제성장률 전망(%, '22.10월 IMF) : (세계) ('22) 3.6 → 3.2, ('23) 3.6 → 2.7 / (한국) ('22) 2.5 → 2.6, ('23) 2.9 → 2.0 / (미국) ('22) 3.7 → 1.6, ('23) 2.3 → 1.0

Ⅱ. 수출 확대 방안

< 수출 목표 및 수출활성화 추진방향 >

◇ (목표) 지원기업수(개사) : ('21) 2,979 → ('22) 3,571 → ('23) 3,602

◇ (방향)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 역량 제고

○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

○ 수출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

1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확대

○ 해외 외국기업 등에 의해 **무단선점된** 우리기업의 **상표 피해현황 실태조사·정보제공** 후 선점된 상표 무력화 및 회수 등 **대응전략 지원**

* 지원기업수(개사) : ('21) 1,874 → ('22) 2,470 → ('23) 2,545

** 해외 상표 무단선점 관련 예산(백만원) : ('22) 3,619 → ('23 정부안) 3,759

2 해외 온·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강화

○ **해외 온라인플랫폼** 內 유통되는 **K-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·차단** 및 오프라인 현장단속, 민·형사 소송 등 **대응전략 지원**

* 지원기업수 : ('21) 52 → ('22) 46 → ('23) 24('22년 대비 예산 약 42% 삭감)

* 해외 위조상품 유통차단 관련 예산(백만원) : ('22) 4,525 → ('23) 2,612

3 우리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 애로사항 대응 강화

○ 주요 수출국 설치(11개국 17개소)된 **해외지식재산센터**를 중심으로 **해외지재권 침해** 관련 **피해조사, 경고장 작성 등 법적대응 강화**

*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(건) : ('21) 30 → ('22 전망) 30 → ('23 목표) 40

4 지식재산 기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○ **유망 수출 중소기업**에 **지재권 확보 전략 수립, 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종합 지원**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

* 지원기업수(개사) : ('21) 820 → ('22) 820 → ('23) 673
**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예산(백만원) : ('22) 14,268 → ('23 정부안) 11,718

○ **글로벌 선도제품 창출**을 위해 **특허와 디자인·브랜드·서비스를 연계**한 제품 중심의 **지식재산(IP) 융합전략 지원**

* 지원기업수(개사) : ('21) 36 → ('22) 40 → ('23) 40
** IP융합 IP-R&D 예산(백만원) : ('22) 4,800 → ('23 정부안) 4,800

5 혁신형 스타트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

○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**스타트업** 대상으로 **해외 권리화** 등 **해외 지재권 확보에 활용**할 수 있는 **지식재산 바우처 발급**

* 지원기업수(개사) : ('21) 197 → ('22) 195 → ('23) 320
**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예산(백만원) : ('22) 1,686 → ('23 정부안) 2,386

6 우리 기업의 신속한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

○ **한국에 등록된 특허**를 수출국에 **무심사 등록***하거나 **우선심사****하는 **특허협력 확대**를 통해 **신속한 특허권 확보 지원**

* 무심사 등록(PRP) : 캄보디아, 라오스 브루나이 시행 중 → 미얀마 확대 추진
** 특허심사하이웨이제도(PPH) : ('21) 36개국 → ('22) 37개국 → ('23) 39개국